

식민지시기 책시장의 동향과 지식·문학의 관계 (1)

— 1910년대 중반 무렵의 변동 국면

柳石桓*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식민지 전반기 책시장의 조망과
앞으로의 과제 |
| II. 한일강제병합의 충격과 책시장의 반응 | |
| III. 1910년대 중반 무렵의 책시장의
변화상 | |

• 국문초록

이 글은 식민지 전반기 책시장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재검토한 글이다. 책시장의 교재 우선주의의 경향성은 한일강제병합을 경험하고 나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식민지시기 책시장의 첫 번째 획기적인 변동은 1910년대 중반 무렵에 발생했다. 조선총독부의 차별 정책 때문에 교재시장에서 식민지 출판기구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졌던 것이 그 원인 중 하나였다. 당시 출판기구들은 중국어책과 식민지 조선에서 생산된 한문책, 문학책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이는 식민지 출판기구들이 장기지속적인 사회적·문화적 구조물, 달리 말하자면, ‘한자권’을 새롭게 발견한 결과였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한자권에 기초한 책시장의 중층성은 제국과 식민지의 역학 혹은 일본어책과 조선어책의 대립 구도 속에서 식민지시기 책시장의 운명을 설명한 기존 연구들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다.

주제어 : 책시장, 문학시장, 중국어책(唐板), 책 광고, 판매도서목록집

*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연구원

I. 문제의 제기

‘책의 역사’나 ‘책의 문화사’와 관련된 연구성과들이 말해주듯이 ‘책시장(book market)’은 지식·문학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필수 불가결하다. 만약 지식·문학의 주류적인 교환 방식이 매매에 근거하게 된 근대사회가 연구의 대상이라면, 책시장 검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¹⁾

그런데 문제는 식민지시기에는 출판연감과 같이 책시장의 동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자료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그나마 일제가 남긴 출판 검열 보고서가 일정한 관점과 기준, 방법 아래 식민지시기의 책시장 전반을 파악한 결과물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는 자료의 공백기다. 출판 검열을 전담하는 도서관과 1926년 4월에 출범했기 때문에 그 이전 시기 동안에는 도서관의 『朝鮮出版警察月報』와 같은 정기적·지속적인 검열 보고서가 부재했다.²⁾ 더구나 검열 보고서에는 오류도 적지 않다. 가끔씩이기는 했지만 검열 당국은 책과 잡지를 하나의 범주로 통합해서 취급하기도 했다. 만약 그 검열 보고서가 수치만 제시된 통계 보고서라면, 그것만으로 잡지와 책을 구분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제의 검열 보고서는 비록 그것이 책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생산된 것이지만, 실상과의 괴리가 없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³⁾ 검열

1) 이 글은 식민지시기 주요 신문들의 책 광고를 대상으로 진행된 일련의 기초연구들을 바탕으로 집필된 글이다. 책을 일종의 제도로 봐야 하는 까닭과 책시장 분석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그 기초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이 글의 문제의식은 「문학 범주 형성의 제도사적 이해를 위한 시론·출판사·서점의 판매도서 목록을 중심으로」(『현대문학의 연구』 57,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에서 시론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 글은 그간의 기초연구들을 바탕으로 그 문제의식을 전면화한 결과물인 셈이다. 참고로 신문의 책 광고에 대한 기초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식민지시기 책시장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1): 『매일신보』의 책 광고」, 『민족문학사연구』 64, 민족문학사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7; 「식민지시기 책시장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2): 『동아일보』의 책 광고」, 『상허학보』 54, 상허학회, 2018; 「식민지시기 책시장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3): 『조선일보』의 책 광고」, 『상허학보』 62, 상허학회, 2021.

2) 정근식, 「식민지적 검열의 역사적 기원: 1904~1910년」, 『사회와 역사』 64, 한국사회사학회, 2003; 정근식·최경희, 「도서관의 설치와 일제 식민지출판경찰의 체계화, 1926~1929」, 검열연구회, 『식민지 검열: 제도·텍스트·실천』, 소명출판, 2011 참조.

3) 검열 보고서와 역사적 실상과의 괴리에 주목한 최근의 사례연구로는 이민주, 『제국과 검열: 일제하

보고서는 책시장의 통제와 관리를 목적했던 검열 당국의 시각 아래 생산된, 책시장에 대한 하나의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합리적이다. 확실히 검열 보고서에 반영된 책시장의 전체성을 어느 수준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게다가 이 글처럼 식민지시기의 전반기를 연구대상으로 삼게 되면, 검열 보고서의 활용 범위는 더욱더 작아진다.

이런 자료상의 한계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자료가 출판사·서점의 판매도서 목록집이다.⁴⁾ 판매도서목록집은 검열 보고서와 다르게 책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다. 그 이름대로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특정 책들의 정보를 모아놓은 판촉물에 불과하다. 하지만 당시에는 출판사와 서점이 양자 간의 분업보다는 검업을 지향했다. 판매도서목록집의 발행 주체들은 통신판매를 통한 서점 기능의 활성화와 매출 규모의 극대화를 위해 가급적 많은 책들의 정보를 판매도서목록집에 수록하고자 했다. 이 때문에 판매도서목록집에는 책시장에서 매대된 책들을 실사한 것을 방불하게 할 만큼 상당한 양의 책 목록이 집적되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원활한 판매를 위해 책들에 대한 관념이 판매도서목록집들 사이에서 일정하게 공유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생산자와 판매자, 구매자 간에 책에 대한 관념의 유사성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책의 유통은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결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시기별로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 판매도서목록집들의 중요한 특징이다. 판매도서목록집에 반영된 책 분류법과 해당 항목의 책 종수 규모는 그런 특징을 잘 보여준다. 요컨대, 판매도서목록집은 책시장에서 유통된 주류적인 책들과 이 책들에 대한 사회적 관념의 변화상을 시계열적으로 검토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판매도서목록집에서 보이는 흥미로운 점은 책시장에 대한 기존의 통념과 맞지 않는 현상들이 눈에 띈다는 것이다. 먼저, 다음의 표를 살펴보자.

신문통제와 제국적 검열체제』, 소명출판, 2020, 170~193면.

4) 판매도서목록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유석환, 「출판사·서점의 판매도서목록에 대한 몇 가지 단상」, 『근대서지』 11, 근대서지학회, 2015 참조. 이 글에서는 책자 형태로 간행된 판매도서목록을 판매도서목록집으로, 그 외의 것들은 판매도서목록으로 표현했다.

〈표 1〉 광학서포와 신문사의 판매도서목록집의 분류 항목과 책 종수

제 호	書目提要		書籍目錄	
발행처	廣學書舖		新文社 代理部	
발행일	1910.06		1913년 혹은 1914년으로 추정	
책 분류 항목 및 책 종수	분류 항목	책 종수	분류 항목	책 종수
	學部 編纂 教科用圖書	10	新刊書籍	97
	歷史及傳記書類	48	朝鮮總督府 編纂 教科用圖書	15
	地理及地圖書類	35	歷史及傳記	18
	數學及測量書類	32	地理及地圖	28
	政治及法律書類	57	數學及測量書類	36
	實業及經濟書類	48	政治及法律書類	40
	教科及教育書類	99	實業及經濟	50
	語學及雜著書類	87	教科及教育書類	94
	新小說類	28	語學	44
	소 계	444	參考及雜著	59
			小說	48
			소 계	529

<표 1>은 1900년대의 대표적인 출판사였던 광학서포와, 1910년대의 대표적인 잡지사였던 新文社의 판매도서목록집에서 책 분류 항목과 해당 책 종수 규모만을 추출해서 정리한 것이다.⁵⁾ 보다시피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찾기가 더 쉽다. 차이점

5) 新文社가 잡지사였음에도 판매도서목록집을 발행했던 까닭은 책의 통신판매를 전담했던 부서를 산하에 뒀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그런 부서를 “代理部”라고 불렀다. 신문사는 1913년 4월 15일에 잡지 『新文界』를 창간하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 발행일 정보가 없는 신문사의 판매도서목록집을 1913년 내지는 1914년이라고 추정한 까닭은 분류 항목의 종류, 책 종수 규모 등에서 1914년 5월에 발행된 新文館의 판매도서목록집과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신문사의 판매도서목록집은 신문관의 것보다 시기적으로 더 먼 광학서포의 것과 훨씬 더 유사하다.

한편, 전지 형태로 발행된 신문사의 또 다른 판매도서목록이 현전한다. 이 역시도 발행일 정보가 빠져 있다. 하지만 신문사에서 1915년에 출판한 책 정보를 담고 있어 1915년 이후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당연히 그 판매도서목록은 표1에서 제시한 판매도서목록집보다 책 종수도 200여 종 더 많고, 책 분류 항목도 더 다양하다. 그런 면에서 신문관의 1914년판 판매도서목록집보다는 1918년 10월에 발행된 廣韓書林의 판매도서목록집과 훨씬 더 유사하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표1에서

이라고 하면, 신문사의 판매도서목록집에서 “新刊書籍”이라는 항목이 추가되고, 광학서포 것에서 “語學及雜著書類”가 “語學”과 “參考及雜著”로 분화·추가·재편되는 한편, 책 종수 전체 규모가 약 1.2배 증가했다는 정도다. 물론 분류 항목마다 책 한 권 한 권의 개별적인 정보까지 따져보면, 두 판매도서목록집의 차이점은 더 커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도서목록집의 전체적인 틀은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사실 두 목록집의 발행일 차이를 고려하면, 방금 언급했던 차이점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신간도서는 늘어나고, 그에 따라 책 분류법은 더 정교해지기 때문이다.

상기할 사실은 이렇게 서로 닮은 두 판매도서목록집 사이에 한일강제병합이라는 대격변의 역사적 사건이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 그 사건이 책시장의 역사에서 중요한 까닭은 그때부터 책에 대한 일제 검열의 전방위적인 공세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책에 대한 일제의 검열은 한일강제병합 이전부터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대한제국의 주권을 완벽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책시장에 대한 일제의 개입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한일강제병합을 기념이라도 하듯 그로부터 석 달 후인 1910년 11월 19일에 내려진 발매반포금지 처분 아래 51종의 책이 한꺼번에 책시장에서 퇴출당했던 일은 그런 사정을 시사한다. 당시의 책 검열 사건은 한반도에서 자행된 일제의 책 검열 역사에서 그 이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찾아볼 수 없는 최대 규모였다.

이 까닭에 그동안의 연구들에서는 1900년대와 1910년대의 책시장을 다른 관점에서 파악했다. 전자의 시기에 대해서는 민간 출판기구(출판사·서점)의 활력을, 후자, 특히 1910년대 초반의 시기에 대해서는 검열 당국의 구속력에 초점을 맞춰 책시장의 동향과 양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기존 연구들의 명시적·암묵적인 전제 사항이었다. 그 결과 1900년대와 1910년대의 책시장을 연속성에 초점을 맞춰 검토한 연구는 좀처럼 나오지 못했다. 1900년대의 책시장과 1910년대의 책시장, 이런 식으로 두 시기를 끊어서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⁶⁾

제시한 신문사의 판매도서목록집을 1913년 내지 1914년 것으로 추정했다.

- 6) 대표적으로는 김봉희, 『한국 개화기 서적문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9; 강명관, 「근대 계몽기 출판운동과 그 역사적 의의」, 『민족문화사연구』 14, 민족문화사학회, 1999; 민족문화사 편, 『근대계몽기의 학술·문예사상』, 소명출판, 2000; 이중연, 『책의 운명』, 혜안, 2001; 방효순, 「일제 시대 민간 서적발행활동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한기형,

따라서 이 글에서는 출판사·서점의 판매도서목록집을 근거로 식민지 전반기 책시장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재검토하려고 한다. 이때 판매도서목록집을 객관화하고, 자료상의 한계를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 일제가 남긴 검열 보고서와 함께 신문의 책 광고를 활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책시장 전체의 동향을 어느 정도는 사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글에서는 문학과 비문학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 일제의 政論 통제에 따라 그 역할의 일정 부분을 문학이 맡게 됨으로써 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한층 커졌다는 것은 해당 분야 연구자들의 거의 공통된 견해다. 이 글에서도 그런 견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제기하고 싶은 점은 검열의 파고에서 문학만 독야청청 존재했을 리는 만무하고, 독자들이 정론의 대체재로서 곧바로 문학을 선택했다고 상상하는 것도 너무 단순하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문학의 사회적 위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변화해 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충분히 해명되지 못했다. 책시장의 거시적인 변동을 고려하며 문학과 비문학의 관계를 검토하는 일은 문학과 지식문화의 역사적 맥락을 좀더 깊이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확보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Ⅱ. 한일강제병합의 충격과 책시장의 반응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수백 종의 책 정보를 담은 판매도서목록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1906년 6월 5일부터 국한문판 『대한매일신보』에 수록된 대동서관의 “出售書目”이다.⁷⁾ 대동서관에서는 판매도서목록을 3회 분량으로 나누어서 1회마다 이틀씩 게재했다. 이렇게 모두 6일에 걸쳐 연재된 대동서관의 판매도서목록을 책 분류 항목과 해당 항목의 책 종수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식문화의 변동과 문학장의 재구성: 1910년대와 1920년대 초반의 상황」, 『반교어문연구』 38, 반교어문학회, 2014 등.

7) 유석환, 「출판사·서점의 판매도서목록에 대한 몇 가지 단상」, 『근대서지』 11, 근대서지학회, 2015, 556~557면.

〈표 2〉 大同書館 出售書目的 책 분류 항목 및 책 종수

출처	『大韓每日申報』 1906.06.05./06.06.		『大韓每日申報』 1906.06.10./06.12.		『大韓每日申報』 1906.06.13./06.14.	
분류 항목 및 책 종수	분류 항목	책 종수	분류 항목	책 종수	분류 항목	책 종수
	蒙學用	35	史學叢書	55	經濟學	18
	高等小學用	17	地理學	8	農學	14
	中等用	44	政治及法律學	49	商學	11
	高等用	2	社會學	12	工學	10
	教育家及師範用	29	哲學	17	醫學之最新發明者	35
	소계	127	소계	141	兵學之最新發明者	18
					傳記	22
					소계	128
총계	396종					

대동서관에서는 396종의 책 목록을 17개의 분류 항목으로 구분했다. 그 분류 항목들은 1900년대 후반기에 유행했던 학회지들이 어떠한 지적 기반에서 발행되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다만 대동서관의 분류 항목에는 근대 출판사·서점들의 주력 상품으로 잘 알려진 소설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때는 아직 최초의 신소설로 알려진 『혈의 루』(『만세보』, 1906.07.22.~10.10, 1907년 출판)가 등장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목할 현상은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사용된 교과서나 참고서, 교수서 등과 같은, 요컨대 교재가 판매도서목록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다. 대동서관에서는 판매도서목록을 3회 연재하는 동안 교재를, 그것도 그 한 종류만을 연재 첫 회에 배정할 정도로 교재를 중시했다. 대동서관의 판매도서목록에서 교재는 모두 127종이었는데, 이는 전체 책 종수에서 32.1%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대동서관에서 판매하는 책들에서 3권 중 1권은 교재였던 셈이다.

교재의 중추적인 위상은 대동서관의 판매도서목록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다. 예컨대, 대동서시와 중앙서관, 회동서관은 책을 공동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그 판매도서목록 광고가 국한문판 『대한매일신보』에 1907년 10월 17일부터 11월 17일까지 25회 수록되었다. 여기서 광고된 116종의 책들 중 약 44%에 해당하는 51종이 교재였다.⁸⁾ 일본 본토의 출판기구 또한 한반도에 책을 공급할 때는 교재를 남달리 취급했다.

이러테면, 도쿄에 소재지를 둔 同文館은 재조일본인 출판기구인 日韓書房을 특약점으로 삼아 한반도의 책시장을 공략했는데,⁹⁾ 同文館에서 1907년 5월 4일 국한문판 『대한매일신보』에 첨부한 판매도서목록의 제목은 “同文館 發行 教育及家庭書類 一覽”이었다. 여기에는 “教授細目及教授案”(16종), “管理法及訓練法” 5종, “體操及遊戲書” 5종, “讀本類” 6종, “辭書類” 6종, “雜書” 11종, “家庭書” 22종, “倫理及修養書類” 13종, “教育學及教育史類” 12종, “心理學及倫理學” 10종, “國語及算術書” 8종, “教授法書類” 20종 해서 모두 134종의 책 목록이 담겨 있었다. 同文館에서는 교재보다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판단한 “商業, 經濟, 財政 書目은 말씀해주시면 다음에 무료 증정”하겠다는 당부의 말을 책 광고에 덧붙였다.

이렇게 교재가 판매도서목록에서 중추적인 위상을 가졌던 까닭은 서세동점에 따른 국가의 재문명화와 함께 근대적인 국민교육의 이념이 보급됨에 따라 국가 구성원 전체의 재교육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제에 의한 식민지화가 가속됨에 따라 계몽이 곧 구국이라는 자강의 논리가 퍼져나가면서 교육열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국가의 존망이 바람 앞의 등불 같았던 당시에 대한제국 정부는 그러한 교육열을 감당할 만한 여력이 없었다. 민간 차원에서 근대지식의 수용 및 보급 사업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근대지식을 생산해낼 만한 인력과 기술력, 지식 유통에 필요한 제반 인프라 등을 상기하면, 민간의 역량만으로는 근대지식을 전면적으로, 그것도 빠르게 수용하기란 상당히 벅찬 일이었다. 따라서 가장 시급히 필요했고, 가장 생산해내기 쉬웠으며, 가장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었던 교재를 중심으로 책시장이 움직이게 되었다.¹⁰⁾

대한제국의 학부 편집국에서 간행했던 『교과용도서일람』은 교재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자료다. 당시에 교과서는 학부에서 직접 편찬했던 교과서와 검정 및 인가 절차를 밟아 유통되었던 교과서,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다. 검정교과서는 학부의 기준을 통과한 것이었고, 인가교과서는 편찬

8) 해방 이전까지는 표준화된 도서분류법이 부재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각주 1번에서 언급한 기초 연구들을 진행하면서 필자가 만든 책 분류표(부록1 참조)를 활용했다.

9) 日韓書房에 관해서는 신승모, 「일한서방(日韓書房)과 ‘일본어’ 권력」, 박광현 · 신승모 편저, 『월경(越境)의 기록』, 어문학사, 2013 참조.

10) 최근의 사례연구로는 권두연, 「보성관(普成館)의 출판활동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44,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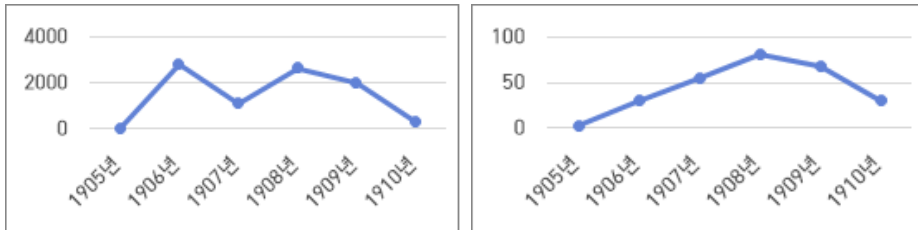
및 검정 교과서 이외의 책을 학부가 교과서로 허가해준 것이었다.¹¹⁾ 승인 절차상 검정교과서의 출원 주체는 출판사였고, 인가교과서의 출원 주체는 일선 학교였다. 편찬교과서는 학부대신이 허가한 발매인에 의해 공급되었다.¹²⁾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1910년 1월과 같은 해 7월에 간행된 『교과용도서일람』 4판과 5판을 비교해보자. 4판에서 편찬교과서는 8종 38책, 검정교과서는 19종 24책, 인가교과서는 233종 341책이었다.¹³⁾ 5판에서는 편찬교과서가 12종 42책, 검정교과서가 33종 48책, 인가교과서가 303종 398책이었다. 책 종수만 보면 불과 반년 만에 편찬교과서는 150%, 검정교과서는 173.7%, 인가교과서는 130.6%로 그 규모가 커졌다. 조선총독부의 기록에 의하면, 발매인에 의해 판매된 편찬교과서의 규모는 1908년 28,071부, 1909년 202,936부, 1910년 133,217부였다.¹⁴⁾ 증감의 기복이 크지만, 당시 정황상 편찬교과서의 발행 규모가 향후 계속해서 더 커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자는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출판기구들은 책시장에서 자신의 입지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교재시장에 앞다투어 뛰어들었고, 학부에서는 교과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그 출판기구들을 적절히 동원했다. 그 결과 당시의 주요 출판기구들의 사주가 망라된 편찬교과서 발매인 규모는 39명(4판)에서 55명(5판)으로 증원되었다. 발매인들 중 재한일본인이 10명에서 12명으로 2명 늘어나는 동안 한국인은 29명에서 43명으로 14명 늘어났다.

교재의 증추적인 위상과 교재시장의 성장세는 국한문판 『대한매일신보』의 책 광고를 통해서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 광고의 내용을 다음의 도표를 통해 확인해보자.

-
- 11) 이는 勅令 제62호로 1908년 8월 26일에 공포된 私立學校令 제6조에 근거한 것이었다.
- 12) 「學部編纂教科用圖書發賣規程」, 『教科用圖書一覽』(제4판), 1910.01, 29면.
- 13) 편찬 및 검정 교과서와 달리 인가교과서 목록에는 책수가 누락된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1책으로 상정하여 계산했다. 따라서 본문에서 제시한 인가교과서의 책수 규모는 최소치다. 참고로 책수가 누락된 인가교과서의 규모를 살펴보면, 4판에서는 13종, 5판에서는 31종이었다. 전체 종수에 비해 누락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책수가 누락된 인가교과서의 규모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 14)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施政年報』, 1911, 247면과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施政年報』, 1912, 360면.

〈그래프〉『大韓每日申報』 책 광고의 전체건수(左)와 신간종수(右) 추세



국한문판 『대한매일신보』의 책 광고를 통해 소개된 책 종수(신간종수)는 모두 267종이었고, 광고를 통해 그 267종의 책들이 소개된 건수의 총합(전체건수)은 8,903건이었다(말하자면, 267은 8,903에서 중복값을 뺀 수치다).¹⁵⁾ 두 그래프를 보면, 전체건수 그래프는 1907년을 기준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데 비해 신간종수 그래프는 계속 상승해 1908년에 정점에 도달했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상승하지 못하고 줄곧 하강했다. 이와 같은 그래프들의 추세는 정치적인 압력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1907년에 신문지법이 공포된 후 『대한매일신보』와 같이 치외법권 영역에 존재했던 인쇄매체까지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 1908년에 신문지법이 개정되었던 일이라든지, 교과서를 통제했던 사립학교령이 1908년에, 책(과 잡지)의 통제를 겨냥했던 출판법이 1909년에 공포되었던 일에 책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특히 신간종수의 그래프가 증언하듯이 출판법의 발동은 책시장의 성장세를 확실히 꺾었던 사건이었다.

주의할 사실은 1908년 이후의 하강세가 예상만큼 급격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일강제병합(1910.8.)만 없었다면, 하강세가 더 완만해졌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 까닭을 다음의 표를 보며 알아보자.

15) 그래프와 표에서는 1회의 책 광고에서 책 종수가 100종 이하의 책 광고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100종이 넘어가면 대형 판매도서목록처럼 취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한문판 『大韓每日申報』에서 100종을 초과하는 책 광고는 본문에서 언급한 大同書館의 것과 大東書市·中央書館·滙東書館의 것, 同文館의 것 이렇게 3개였다. 大同書館의 것은 396종 792건, 大東書市·中央書館·滙東書館의 것은 116종 2,900건, 同文館의 것은 134종 134건이었다. 그래프와 표에서는 이 수치들이 제외되었다.

〈표 3〉 『大韓每日申報』 책 광고의 대분류 항목에 따른 시기별 분포

		1905년	1906년	1907년	1908년	1909년	1910년
한서	전체 건수	0 (0.0%)	313 (11.1%)	0 (0.0%)	28 (1.1%)	50 (2.5%)	12 (4.0%)
	신간 종수	0 (0.0%)	3 (10.0%)	0 (0.0%)	1 (1.2%)	4 (5.9%)	3 (10.0%)
인문학	전체 건수	24 (66.7%)	598 (21.2%)	301 (27.2%)	296 (11.2%)	79 (3.9%)	8 (2.6%)
	신간 종수	2 (66.7%)	8 (26.7%)	10 (18.2%)	9 (11.1%)	2 (2.9%)	1 (3.3%)
사회과학	전체 건수	0 (0.0%)	342 (12.1%)	200 (18.1%)	770 (29.2%)	234 (11.7%)	14 (4.6%)
	신간 종수	0 (0.0%)	6 (20.0%)	20 (36.4%)	14 (17.3%)	8 (11.8%)	5 (16.7%)
자연과학	전체 건수	0 (0.0%)	0 (0.0%)	0 (0.0%)	16 (0.6%)	0 (0.0%)	0 (0.0%)
	신간 종수	0 (0.0%)	0 (0.0%)	0 (0.0%)	1 (1.2%)	0 (0.0%)	0 (0.0%)
기술과학	전체 건수	0 (0.0%)	294 (10.4%)	169 (15.3%)	155 (5.9%)	184 (9.2%)	9 (3.0%)
	신간 종수	0 (0.0%)	2 (6.7%)	4 (7.3%)	4 (4.9%)	6 (8.8%)	2 (6.7%)
교재	전체 건수	12 (33.3%)	1,269 (37.5%)	251 (22.7%)	983 (37.3%)	1,271 (63.3%)	253 (83.8%)
	신간 종수	1 (33.3%)	11 (36.7%)	15 (27.3%)	37 (45.7%)	41 (60.3%)	18 (60.0%)
예술 · 대중문화	전체 건수	0 (0.0%)	0 (0.0%)	6 (0.5%)	58 (2.2%)	83 (4.1%)	0 (0.0%)
	신간 종수	0 (0.0%)	0 (0.0%)	2 (3.6%)	3 (3.7%)	3 (4.4%)	0 (0.0%)
문학	전체 건수	0 (0.0%)	0 (0.0%)	180 (16.3%)	309 (11.7%)	26 (1.3%)	4 (1.3%)
	신간 종수	0 (0.0%)	0 (0.0%)	4 (7.3%)	8 (9.9%)	0 (0.0%)	0 (0.0%)

기타	전체 건수	0 (0.0%)	0 (0.0%)	0 (0.0%)	20 (0.8%)	80 (4.0%)	2 (0.7%)
	신간 종수	0 (0.0%)	0 (0.0%)	0 (0.0%)	4 (4.9%)	4 (5.9%)	1 (3.3%)
합계	전체 건수	36 (100%)	2,816 (100%)	1,107 (100%)	2,635 (100%)	2,007 (100%)	302 (100%)
	신간 종수	3 (100%)	30 (100%)	55 (100%)	81 (100%)	68 (100%)	30 (100%)

이 표는 책 분류표의 9개의 대분류 항목을 기준으로 책들의 전체건수와 신간종수의 시기별 규모를 정리한 것이다. 괄호 안의 백분율은 해당 시기에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말하자면, 1905년에 인문학책의 경우 전체건수는 24건이었고, 이는 1905년의 전체건수에서 66.7%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는 식으로 표를 읽으면 된다. 그랬을 때 단연 눈에 띄는 현상은 교재의 비중이다. 특히 9개의 대분류 항목 중 교재는 유일하게 규모가 성장한 항목이었다. 이 현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수치의 크기가 미미한 여섯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세 항목, 즉 교재와 인문학, 사회과학을 비교해보자. 전체 시기를 양분하여 전체건수와 신간종수의 평균비중을 확인하면, 먼저 인문학의 경우 전체건수의 평균비중은 38.4%에서 17.8%로, 신간종수의 평균비중은 37.2%에서 5.8%로 크게 감소했다. 사회과학의 경우 전자는 10.1%에서 15.2%로 소폭 상승했던 데 반해 후자는 18.8%에서 15.2%로 소폭 감소했다. 그런데 교재의 경우 그 전체건수의 평균비중은 33.7%에서 61.5%로, 신간종수의 평균비중은 32.4%에서 55.3%로 모든 수치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인문학의 위축과 사회과학의 정체 속에서 교재만이 홀로, 그것도 크게 성장했다. 앞의 그래프에서 1908년 이후에 완만한 하강세는 바로 교재 덕분이었던 셈이다. 참고로 전 기간 동안 교재의 전체건수는 4,039건이었고, 신간종수(책 종수)는 123종이었다. 이는 책 광고 전체에서 각각 45.4%와 46.1%를 차지하는 수치였다.

이처럼 출판법을 비롯한 각종의 통제 조치에 책 시장이 적응해 가던 가운데 한일강제병합에 따른 대대적인 책 검열 사건이 발생했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 11월 19일에 51종 66책에 대해 발매반포를 금지하고 해당 책들의 인쇄본 및 각판을 압수했는데, 그 이유는 “안녕질서를 방해한 것”이었다.¹⁶⁾ 이 검열 처분 때문에 출판기구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경성에 국한에서만 봐도 압수된 서적은 63,300여 권 정도나 되었고, 재산손해액은 어림잡아도 최소 20,000여 원 이상이었다. 광학서포, 옥호서림, 휘문관, 박학서관, 황성신문사, 광학서림 등이 당시에 큰 피해를 입었던 경성의 출판기구들이었다.¹⁷⁾

그러나 이와 같은 조선총독부의 대대적인 검열 처분이 책시장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다. 발매반포 금지 처분을 받았던 51종의 책(부록2 참조)을 책 분류표의 대분류 항목에 맞춰 다시 정리하면, 교재가 22종, 사회과학 14종, 인문학 10종, 문학 4종, 예술·대중문화 1종이었다. 여기에는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미국독립사』, 『화성돈전』, 『을지문덕』, 『이태리건국삼걸전』, 『애국정신담』, 『국가사상학』, 『국가학강령』, 『국민자유진보론』, 『세계삼괴물』, 『이십세기시대참극 제국주의』, 『음빙실문집』과 같이 한국 민족의 독립 의식을 고취할 만한 책이 대거 포함되었다. 그러나 그런 책들 때문에 경성의 출판기구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압수 서적 중 학부 불인가 교과서의 비중이 컸”기 때문이었다.¹⁸⁾ 예컨대, 광학서포와 함께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옥호서림의 경우 발매반포 금지 처분을 받았던 책은 『국가사상학』, 『초등대한역사』, 『최신초등대한지』, 『최신고등대한지』, 『최신초등소학』, 이상 5종에 불과했지만, 압수된 책의 양은 1만 권이 넘었다. 조선총독부는 반체제적인 책을 책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퇴출시키는 것과 동시에 대한제국과 정반대로 민간에 이양되었던 교육사업의 주도권을 최대한 회수하고자 했다. 조선총독부는 한일강제병합 이듬해에 공포된 조선교육령(1911.8.23.)과 사립학교규칙(1911.10.20.) 등을 통해 그런 의도를 명백히 드러냈다.

그러나 아무리 조선총독부라고 할지라도 단기간에 한반도의 교육계를 장악하는 일은 불가능했다. 일례로 “1910년대 조선인은 대부분 보통학교의 취학을 거부하고, 오히려 전통 교육기관인 서당에 취학하는 쪽을 선택하였다.”¹⁹⁾ 여기에는 반일 감정에 따른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저항과 기피도 없지 않았겠지만, 그보다는 오랫동안

16) 「朝鮮總督府 警務總監部 告示 第七十二號」, 『朝鮮總督府官報』 69, 1910.11.19.

17) 장신, 「한국강점 전후 일제의 출판통제와 '51종 20만권 분서(焚書)사건'의 진상」, 『역사와 현실』 80, 한국역사연구회, 2011, 230~231면.

18) 장신, 「한국강점 전후 일제의 출판통제와 '51종 20만권 분서(焚書)사건'의 진상」, 『역사와 현실』 80, 한국역사연구회, 2011, 231면.

19)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23면.

동안 형성되어 왔던 교육제도의 보수성에 따른 결과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더구나 관·공립 보통학교의 증설도 더뎠다. 1912년에 330여 개로 시작했던 관·공립 보통학교의 수는 식민지 말기에 이르면 그 규모가 10배 이상 성장했지만, 그 초기 규모가 2배 이상 커지기까지에는 10여 년의 시간(1921년 675개)이 필요했다.²⁰⁾ 당연히 조선총독부의 교과서 제작사업도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다. 『교과용도서일람』 6판(1912.1.)과 7판(1913.7.)에 의하면,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교과서는 12종 42책(6판)에서 24종 80책(7판)으로 불과 6개월 만에 2배 정도 증가했지만, 이것만으로 일선학교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대한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조선총독부 역시 검정교과서와 인가교과서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교과용도서일람』에서 제시한 검정교과서 규모는 46종 68책(6판)과 48종 75책(7판)이었고, 인가교과서는 규모는 268종 383책(6판)과 291종 409책(7판)이었다. 대략적으로 검정교과서는 50여 종 80여 책 수준을, 인가교과서는 300여 종 400여 책 수준을 상한선으로 두고 책시장에서 유통되었다. 이를 학부가 마지막으로 발행했던 『교과용도서일람』 5판(1910.7)과 비교하면, 검정교과서의 규모는 1.5배 정도 늘어났고, 인가교과서의 규모는 비슷했다. 당연히 조선총독부의 사정을 식민지 출판기구들도 파악하고 있었다.

〈표 4〉 『毎日申報』 책 광고의 대분류 항목에 따른 시기별 분포: 1910~1914

		1910년	1911년	1912년	1913년	1914년
한서	건수	0(0.0%)	262(6.3%)	322(8.1%)	191(5.9%)	232(7.7%)
	종수	0(0.0%)	6(3.3%)	12(4.6%)	14(4.6%)	3(2.0%)
인문학	건수	89(27.5%)	669(16.2%)	184(4.7%)	108(3.3%)	136(4.5%)
	종수	16(34.0%)	30(16.4%)	21(8.1%)	14(4.6%)	9(6.1%)
사회과학	건수	36(11.1%)	444(10.7%)	401(10.1%)	403(12.4%)	241(8.0%)
	종수	7(14.9%)	24(13.1%)	42(16.2%)	41(13.4%)	28(19.0%)
자연과학	건수	0(0.0%)	0(0.0%)	6(0.2%)	0(0.0%)	0(0.0%)
	종수	0(0.0%)	0(0.0%)	1(0.4%)	0(0.0%)	0(0.0%)
기술과학	건수	0(0.0%)	309(7.5%)	190(4.8%)	93(2.9%)	143(4.7%)
	종수	0(0.0%)	18(9.8%)	13(5.0%)	13(4.2%)	8(5.4%)

20)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119면.

교재	건수	137(42.3%)	2,066(49.9%)	1,762(44.6%)	1,268(39.1%)	1,331(44.0%)
	종수	11(23.4%)	91(49.7%)	110(42.5%)	102(33.2%)	55(37.4%)
예술 대중문화	건수	35(10.8%)	64(1.5%)	129(3.3%)	51(1.6%)	49(1.6%)
	종수	6(12.8%)	3(1.6%)	8(3.1%)	9(2.9%)	7(4.8%)
문학	건수	8(2.5%)	257(6.2%)	843(21.3%)	1,003(30.9%)	858(28.3%)
	종수	2(4.3%)	9(4.9%)	46(17.8%)	78(25.4%)	35(23.8%)
기타	건수	19(5.9%)	70(1.7%)	118(3.0%)	129(4.0%)	38(1.3%)
	종수	5(10.6%)	2(1.1%)	6(2.3%)	36(11.7%)	2(1.4%)
합계	건수	324(100%)	4,141(100%)	3,955(100%)	3,246(100%)	3,028(100%)
	종수	47(100%)	183(100%)	259(100%)	307(100%)	147(100%)

이 표는 1910년대 전반기를 대상으로 앞의 표3처럼 『매일신보』의 책 광고를 책 분류표의 대분류 항목에 맞춰 전체건수와 신간종수의 시기별 규모를 정리한 것이다.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 1910년대 동안 『매일신보』에 수록된 책 광고의 규모는 엄청나다.²¹⁾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10~1945년에 『매일신보』의 책 광고를 통해 소개된 책들의 전체건수는 39,196건이었다.²²⁾ 그런데 그중 2/3에 해당하는 25,023건(63.8%)이 1910년대(1910~1919)에 집중되었다. 더구나 그 25,023건 중 1910년대 전반기(1910~1914) 동안에만 14,694건이 몰려 있었다. 이 14,694건은 1910년대 전체건수의 58.7%에 해당했고, 식민지시기 전 기간에 걸친 전체건수의 37.5%에 해당했다. 한마디로 1910년대 전반기는 『매일신보』 책 광고의 양적 절정기였다.

21) 이경현, 「1910년대 新文館의 문화기획과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3, 27~51면; 한기형, 「지식문화의 변동과 문학장의 재구성: 1910년대와 1920년대 초반의 상황」, 『반교어문연구』 38, 반교어문학회, 2014; 유석환, 「식민지시기 책시장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1): 『매일신보』의 책 광고」, 『민족문화사연구』 64,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17 등.

22) 각주 16번에서도 밝혔듯이 1회의 책 광고에서 소개되는 책 종수는 1종에서부터 수백 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각주 22번에 언급한 기초연구에서는 그런 책 광고들 중 20종 이하의 책 목록만 담고 있는 책 광고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후에 또 다른 신문들을 가지고 기초연구를 진행하면서 100종 이하의 책 광고로까지 분석대상을 확대했다. 본문에서 언급한 수치는 100종 이하의 책 광고까지 확대하여 새롭게 분석한 결과다. 참고로 『每日申報』 전 기간 중 100종을 초과한 책 광고의 규모는 43회였다. 그 43회 중 1910년대의 것은 9회였다.

교재는 이 절정기 동안 책 광고의 핵심이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교재는 전체건수와 신간종수 모두에서 1910년대 전반기 내내 수위를 차지한 항목이었다. 1900년대 후반기의 국한문판 『대한매일신보』 책 광고에서 확인했던 교재의 중추적인 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참고로 해당 기간에 교재의 전체건수 합은 6,564건(44.7%)이었고, 신간종수의 합은 369종(39.1%)이었다.

이렇게 책 광고에서 교재의 위상이 변함없었던 데 반해 1900년대 후반기에 교재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1910년대에 들어서 그 비중이 감소했다. 국한문판 『대한매일신보』에서 인문학의 전체건수 합과 신간종수 합의 비중은 각각 14.7%(1,306건)와 12.0%(32종)이었다. 하지만 1910년대 전반기 『매일신보』에서는 8.1%(1,186건)와 9.5%(90종)였다. 신간종수 비중은 소폭 감소했던 데 반해 전체건수 비중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는 사회과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사회과학의 전체건수 합과 신간종수 합의 비중은 1900년대 후반기에 17.5%(1,560건)와 19.9%(53종)였고, 1910년대 전반기에는 10.4%(1,525건)와 15.1%(142종)였다. 이와 같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책 광고의 변화상은 역사·전기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서든 정론을 틀어막으려 했던 조선총독부 검열정책의 영향력을 실감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 책시장이 전적으로 좌우된 것은 아니었다. 한일강제병합 직후에 있었던 51종의 책 검열 사건이 잘 보여주듯이 교재 역시 줄곧 검열의 표적이었고 검열 처분도 가장 많았지만, 교재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다. 검열의 압력이 작용해도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출판기구들의 판단 아래 투자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까닭도 당시 출판기구들이 조선총독부의 검열정책 외에도, 실질적·잠재적 구매층, 책의 생산 인력 확보 및 콘텐츠 개발, 일본어 책과의 경쟁 등을 두루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증언하는 것이 책 광고에서 차지하는 문학의 비중 변화다. 문학은 국한문판 『대한매일신보』 책 광고에서 전체건수 합과 신간종수 합의 비중이 각각 5.8%(519건)와 4.5%(12종)에 불과했다. 1911년까지만 해도 책 광고에서 여전히 주변적이었던 문학의 위상은 1912년에 들어서면서 급변했다. 그때부터 문학은 책 광고에서 자신의 입지를 빠르게 확보해 나가 교재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되었다. 변화 속도만 보면, 9개의 항목 중 문학이 단연 으뜸이었다. 그 결과 1910년대

전반기 동안 책 광고에서 문학의 전체건수와 신간종수의 비중은 각각 20.2%(2,969건)와 18.0%(170종)를 기록했다.

당시에 문학의 급속한 성장세를 이끈 책은 소설책이었다. 문학책 170종 중 소설책은 158종이나 되었다.²³⁾ 이때 신소설로 대변되는 근대소설의 전체건수(총 2,109건)는 1910년 3건, 1911년 235건, 1912년 764건, 1913년 694건, 1914년 413건으로 1912년에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했다. 반면에, 고소설의 전체건수(721건)는 1912년 34건, 1913년 261건, 1914년 426건으로 계속 증가했다.²⁴⁾ 책 광고에서 문학 비중의 급속한 확대는 소설, 특히 고소설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고소설은 농민·여성·아동 등 가장 광범위한 독서층에 친숙했고, 총독부의 정치적 압력은 물론 저작권 문제에서도 자유로웠기 때문에 출판기구들은 앞다투어 고소설에 관심을 기울였다. 1910년대 전반기에 광고 빈도수 상위를 차지했던 고소설은 『옥련몽』(빈도수 56회), 『삼국지』(54회), 『수호지』(52회), 『구운몽』(51회), 『옥루몽』(43회) 등이었다. 신소설의 경우에는 『옥중화』(87회), 『만월대』(86회), 『화세계』(84회), 『모란화』(66회), 『산천초목』(52회) 등이었다.

이제 이 글의 서두에서 언급했던 광학서포와 신문사의 판매도서목록집을 비교한 표1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교재의 중추적인 위상을 두 판매도서 목록집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판매도서목록집의 분류 항목을 따르면 교재는 “敎科用圖書”와 “敎科及敎育書類”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광학서포의 판매도서목록집에서 그 두 분류 항목의 책 종수는 109종으로 전체의 24.5%를 차지했다. 그 두 항목은 신문사의 것에서도 109종이었는데, 미분류 항목인 “新刊書籍”을 제외하면, 그 109종은 전체 432종에서 25.2%를 차지하는 규모였다. 당연히 교재는 그 두 항목 외에 다른 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글에서 활용하는 책 분류법을 적용하면, 두 판매도서목록집에서 교재의 규모는 광학서포의 경우 202종(45.5%)이었고, 신문사의 경우에는 “新刊書籍”을 제외했을 때 215종(46.8%)이었다.

23) 新文館에서 발행한 『불상한 동무』와 『자랑의 단추』, 中央書館의 『伊太利少年』, 日韓書房의 『朝鮮お伽噺』, 이상 4종은 동화로 처리하여 본문의 소설 종수에서 제외했다.

24) 책시장에서 신소설 다음에 고소설이 유행한 현상에 대해서는 권순공, 이주영을 비롯한 고전문학 연구자들에 의해 오래전부터 언급되어 왔다. 이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로는 최호석, 『활자본 고전소설의 기초연구』, 보고사, 2017; 장유정, 「활자본 고소설과 식민지 모더니티」,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등을 참조.

이처럼 교재의 중추적인 위상이 공고해져 갔던 가운데 역사·전기물의 감소만큼 소설책의 비중이 확대되었던 사정을 두 판매도서목록집은 여실히 보여준다. 광학서포의 판매도서목록집에서 가장 작은 비중(6.3%, 28종)을 차지했던 소설책은 신문사의 것에서 11.1%(48종)로 그 비중이 2배 가까이 확대되었다. 더구나 신문사의 판매도서목록집에서 미분류 항목인 “新刊書籍”의 경우 대부분이 소설책이었다. “新刊書籍”에서 소설책은 57종으로 “新刊書籍” 전체(97종)에서 58.8%를 차지했다.²⁵⁾ 소설책 중 근대소설은 50종이었고, 고소설은 7종이었다.²⁶⁾

광학서포와 신문사의 판매도서목록집은 한일강제병합에 따른 조선총독부의 정치적인 압력이 가중되던 상황에서 어떠한 획기적인 변화 양상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보다는 자연스러운 변화에 더 가까운 현상을 두 판매도서목록집은 보여준다. 물론 그런 자연스러움은 책시장을 둘러싼 검열 당국과 출판기구 간의 공방과 출판기구들 간 경쟁의 산물이었다. 참고로 신문사의 판매도서목록집에서 “新刊書籍”을 제외한 432종의 책 중 무려 337종(78.0%)이 광학서포의 판매도서목록집에 수록된 책들이었다.

Ⅲ. 1910년대 중반 무렵의 책시장의 변화상

대체로 1920년대까지 조선총독부는 책시장의 동향에 대해 이례적인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다. 굳이 찾아본다면,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식민지 조선인의 출판 규모가 재조일본인의 출판 규모를 역전했다는 정도였다.²⁷⁾ 식민지 조선인의 출판과 재조일본인의 출판 경향성을 비교해봤을 때 식민지 조선인의 출판에서는 소설책과 족보, 유고·문집 등이 중심적인 반면, 재조일본인의 출판에서는 과학적인 학술과 산업

25) 참고로 신문사의 판매도서목록집에서 “新刊書籍”은 문학 58종, 교재 17종, 사회과학 17종, 인문학 2종, 기술과학 2종, 한서 1종이었다. 문학 58종에서 소설책 57종을 제외한 나머지 1종은 최남선이 편찬한 시조집 『歌曲選』이었다.

26) 이를 통해서도 新文社의 판매도서목록집이 책시장에서 고소설이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직전에 발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각주 5번에서 밝힌 대로 新文社 판매도서목록집의 발행일을 1913년 내지 1914년으로 추정했다.

27) 近藤常尙, 「出版物に見たる朝鮮」, 『朝鮮』. 1927.01, 35면.

분야가 중심적이라든지, 식민지 조선인의 출판물은 책이 중심적인 반면, 재조일본인의 출판물은 “繼續出版物”, 즉 잡지가 중심적이라는 것 등이 검열 당국의 일관된 판단이었다.²⁸⁾ 그러나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책시장은 검열 당국의 판단만큼 정태적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다음의 표가 증언하는 것처럼 191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책시장은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표 5〉 신문관, 신문사, 광한서림 판매도서목록집의 분류 항목과 책 종수

제 호	發賣書籍總目錄		發售書籍目錄		圖書分類目錄	
발행처	新文館		新文社 代理部		廣韓書林	
발행일	1914.05.		1915년 혹은 1916년으로 추정		1918.10.	
책 분류 항목 및 책 종수	분류 항목	종수	분류 항목	종수	분류 항목	종수
	教科書類	17	朝鮮總督府編纂教科用圖書	48	朝鮮總督府教科用圖書	58
	辭典及字書類	13	歷史及傳記書類	32	京城書籍組合發行書籍	12
	宗教理學書類	3	地理及地圖類	43	教科教育及參考書類	111
	修養書類	10	修養書類	10	動・植・化・物・ 生理衛生書類	16
	歷史傳記及年表書類	28	理科書類	38	作文書類	4
	地理書及地圖類	29	數學及測量書類	38	歷史地誌及地圖書類	39
	朝鮮語漢文書類	37	漢文科書及朝鮮語書類	47	實業書類	21
	理科書類	34	辭典及玉篇書類	20	經濟書類	5
	數學書類(測量附)	26	圖畫及習字書類	8	簿記書類	7
	圖畫及習字書類	6	宗教書及心理書類	6	數學及算術書類	16
	唱歌及體操書類	5	唱歌及體操書類	7	政治及法律書類	60
	語學書類	38	語學書類	42	語學書類	43
	簡牘書式書類	14	簡牘書類	29	書翰書類	45
	法政經濟書類	26	法政及經濟書類	38	法帖書類	19

28) 유석환, 「문학 범주 형성의 제도사적 이해를 위한 시론」, 『현대문학의 연구』 57,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13~32면; 장신, 「1910년대 재조선 일본인의 출판활동 연구」, 『일본학』 35,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2.

法典及書式書類	20	法典及書式書類	30	字典書類	12
實業書類簿記并	27	實業書類	37	詩律書類	12
教育及家政書類	10	教育及家庭書	12	唱歌歌曲音律類	13
醫藥書類	7	醫藥書類	9	醫學書類	16
雜種書類	27	雜書類	42	卜筮書類	21
新舊小說類	140	新舊小說類	190	教會書類	21
소계	517	소계	726	雜誌書類	4
				漢文小說及傳記書類	35
				小說書類	312
				新舊雜歌類	15
				唐板各種分類目錄	293
				白紙版舊書目錄	34
				소계	1,244

<표 5>의 가운데 위치한 신문사의 판매도서목록이 발행될 무렵까지 출판사·서점의 판매도서목록집은 여전히 부분적인 변화를 거듭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 정도 후에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광한서림의 판매도서목록집은 그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차이점은 분류 항목 수의 증가다. 신문관과 신문사 판매도서목록집의 발행 시점이 달랐음에도 분류 항목 수가 20개로 동일했던 데 비해 광한서림의 판매도서목록에서는 분류 항목 수가 6개 더 증가하여 26개가 되었다. 새롭게 추가된 분류 항목은 “京城書籍組合發行書籍, 漢文小說, 新舊雜歌類, 唐板各種分類目錄, 白紙版舊書目錄” 등이었다. 전체 책 종수가 증가했던 까닭도 기존 분류 항목들에서 책 종수가 늘어난 것보다는 새로 추가된 분류 항목들의 책 종수 때문이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주체는 1916년 하반기 무렵에 조직되었던 경성서적업조합이었다. 경성서적업조합은 고소설과 같이 저작권이 말소된 책들을 둘러싸고 출판사들 간 과도한 출혈경쟁에 의해 책시장의 가격시스템이 붕괴하고, 출판기구의 도산이 잦아지게 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조직이었다. 경성서적업조합은 무엇보다 책의 정가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저작권이 말소된 책들을 독점 출판하는 한편,

비조합원에게는 책의 물물교환이나 매매예약 등을 불허하여 출판기구들의 조합 참여를 강하게 압박했다. 그 결과 경성서적업조합은 당대 주요 출판기구들이 참여한 일종의 출판 카르텔로 기능하게 되었다.²⁹⁾ 이는 경성서적업조합이 출현하기 전에는 판매도서목록집의 변화상이 출판기구들의 개별적인 활동에 기초했다면, 경성서적업조합이 결성되고부터는 그 변화상이 집단적인 차원에서 비롯되었음을 뜻한다.

확실히 경성서적업조합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책시장은 안정세를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합이 조직되고 나서부터는 책의 대대적인 할인에 대한 광고를 신문 지면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경성서적업조합이 갖고 있었던 독점 출판권이 작용한 결과이기도 했다. 경성서적업조합은 조합원들의 판매도서목록집에 “京城書籍組合發行書籍”이라는 별도의 분류 항목을 통해 독점 출판권의 위용을 드러냈다. 광한서림이 발행한 판매도서목록집에서 해당 항목의 책들은 『원본비지맹자집주』, 『정보시전집주』, 『현토구해집주소학』 등의 경서류였다. 물론 경성서적업조합의 출판활동은 경서류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沈淸傳』, 『趙雄傳』, 『劉忠烈傳』, 『懸吐明心寶鑑』, 『最新尺牘大方』, 『特別無雙獄中花』, 『獄中佳人』, 『青年悔心曲』, 『月峰山記』, 『몽결초한송』, 『黃將軍』, 『郭汾陽』, 『秋風感別曲』, 『배비장전』, 『新舊時行雜歌』, 『古代小說玉丹春傳』” 등과 같이 경성서적업조합의 출판활동은 저작권이 말소된 책들 중 검열을 통과할 수 있는 정치적 안전성과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대중성을 갖춘 책들 전반에 걸쳐 있었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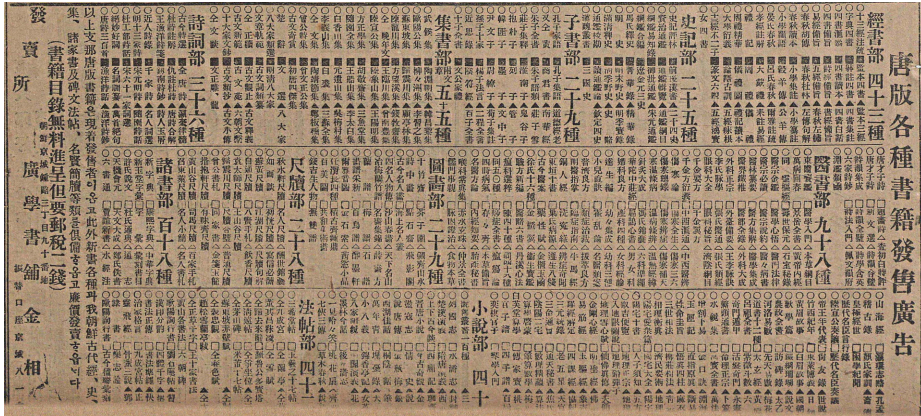
그러나 경성서적업조합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책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화상은 중국어책의 본격적인 유입이었다. 광한서림의 판매도서목록집에서 “唐板各種分類目錄”이라고 제시된 분류 항목이 그와 관련된 것이었다. 중국어책은 경성서적업조합이 유명무실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판매도서목록집에 등장했다. 경성서적업조합이 결성된 직후 조합의 일원이었던 광학서포에서 이례적으로 중국어책만 별도로 구성한 책 광고를 신문 광고란에 게시했는데, 그 광고와 함께 (이 글의 분석시기를 고려하여)

29) 방효순, 「근대 출판문화 정착에 있어 경성서적업의 역할에 관한 고찰」, 『한국출판연구』 38(2), 한국출판학회, 2012.

30) 京城書籍業組合, 「豫約募集廣告」, 『東亞日報』, 1924.09.06, 3면; 京城書籍業組合, 「豫約募集廣告」, 『朝鮮日報』, 1924.09.05, 1면. 이외에 경성서적업조합이 출판한 책들의 전반적인 양상에 관해서는 방효순, 「근대 출판문화 정착에 있어 경성서적업의 역할에 관한 고찰」, 『한국출판연구』 38(2), 한국출판학회, 2012, 44면 참조.

1920년대까지 판매도서목록집에 수록된 중국어책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광학서포의 중국어책 판매 광고: 『매일신보』, 1916.12.16, 3면 소재



〈표 6〉 판매도서목록집에 수록된 중국어책 현황: 1918~1927

발행처	廣韓書林	共進書館	東亞書館	文昌社	三光書林	博文書館
발행일	1918년	1920년	1922년	1923년	1925년	1927년
책 분류 항목 및 책 종수	항목 및 종수	항목 및 종수	항목 및 종수	항목 및 종수	항목 및 종수	항목 및 종수
	經書部 24	經書部 65	經書部 58	經書部 42	經書部 35	經書部 42
	史林部 7	史記部 32	史記部 32	史記部 22	史記部 22	史記部 22
	子書部 21	子書部 26	子書部 26	子書部 25	子書部 25	子書部 25
	集書部 49	文集類 85	文集類 95	文集類 69	文集類 69	文集類 69
	醫書部 50	詩句部 68	詩句部 68	詩句部 43	詩句部 43	詩句部 43
	圖書部 15	參考書 79	參考書 79	參考書 42	參考書 42	參考書 42
	尺牘部 15	小說部 81	小說部 81	小說部 50	小說部 49	小說部 50
	諸書部 83	道書部 46	道書部 46	道書部 4	道書部 4	道書部 30
	法帖部 29	術書部 83	術書部 83	佛眞傳 26	佛眞傳 26	術書部 65
책 종수	소계 293	醫書部 152	醫書部 152	術書部 66	術書部 65	醫書部 98
		圖書部 44	圖書部 44	醫書部 98	醫書部 98	圖書部 23
		尺牘部 46	尺牘部 46	圖書部 23	圖書部 23	尺牘部 24

		字典部	18	字典部	18	尺牘部	26	尺牘部	26	字典部	11
		算學部	8	算學部	8	字典部	11	字典部	11	算學部	5
		碁譜部	8	碁譜部	8	算學部	5	算學部	5	碁譜部	3
		字帖部	151	字帖部	151	碁譜部	3	碁譜部	3	字帖部	60
		소계	992	소계	995	字帖部	81	字帖部	81	소계	612
						소계	636	소계	627		

판매도서목록집에 수록된 전체 책 규모에서 중국어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게는 약 24%(광한서림)에서, 많게는 약 56%(공진서관)까지 다양했다. 하지만 중국어책의 전체 종수 추세가 시사하듯이 대체로 30% 정도(600여 종)를 차지했다. 중국어책의 분류 항목은 초기 9개에서 가장 많을 때는 17개까지 설정되었지만, 이 역시도 16개 정도에서 고정되었다(문창사와 삼광서림의 판매도서목록집에서 중국어책의 분류 항목이 가장 많았던 까닭은 불교 관련 항목인 “佛眞傳”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어책의 종류가 식민지 조선의 출판기구가 출판했던 책만큼이나 다양했음을 뜻한다. 하지만 중국어책의 특징은 판매도서목록집의 발행 시점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었다. 광학서포의 중국어책 광고가 직접적으로 보여주듯이 중국어책은 당대적·시사적인 책은 없고, 경서류와 같이 모두가 중국의 고전적인 책이었다. 표6에서 가장 늦은 시기에 발행된 박문서관의 판매도서목록집을 보더라도 경서류 외에 규모가 가장 큰 “醫書部”의 경우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의서인 『황제내경』을 비롯하여 명대의 대표적인 의서인 『본초강목』, 청대에 간행된 『외과비록』 같은 책들이 해당 항목을 장식했다. “小說部” 역시 『삼국지』, 『수호지』, 『서상기』, 『도화선』 등 중국의 대표적인 고전 소설 및 희곡이었고, “算學部”의 책도 명·청대에 간행된 『산법통종』, 『수리정온』, 『역상고성』 등의 수학책이었다. 요컨대, 판매도서목록집의 발행 시기에 따라 그것에 수록된 중국어책 종수의 가감만 있을 뿐이었지 중국어책은 모두 그 초간 연도가 19세기 후반 이전의 책들이었다.³¹⁾

이와 같은 중국어책 유입이 식민지시기 말까지 지속되었다는 것은 그 수요층이 상당했다는 사실을 뜻한다. 일례로 1930년대 중반에 조선일보사에서는 경성서적업

31) 1937년에 발행된 文廣圖書館의 판매도서목록집에 수록된 중국어책도 동일했다.

조합의 결성을 주도한 출판기구이자 식민지시기의 메이저급 출판기구 중 하나였던 회동서관의 성공비결을 취재한 적이 있었다. 회동서관에서는 그 비결 중 하나를 “당판 서적을 한 번에 몇 백 량어치식 중국 상해(中國 上海)로부터 주문해다가 판 것이 더욱 경향 유생(儒生)들 사이에 일흠나게” 되었고, 심지어는 “교경산방(校經山房)이라는 상해 제일의 당판 서적 발행소”와 “신용거래를 터서 한때 거래에 은(銀) 만 량어치식 일 년에 세 번, 즉 매년 삼만 량어치의 책을 외상 수입하기로 특약하기에 성공”한 것이었다고 밝혔다.³²⁾

이는 아마도 회동서관이 경성서적업조합 내에서 중국어책 유통의 책임을 맡았던 데서 비롯된 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회동서관의 중국어책 거래 규모는 과장되었다기 보다는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그도 그럴 것이 식민지시기의 출판기구들은 한반도에서 가장 근대적인 공간인 경성에 몰려 있었지만, 그 출판기구들의 실질적·잠재적 고객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문화의 자장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1923년 무렵이 되어서야 보통학교의 학생 규모는 서당의 학생 규모를 처음으로 앞질렀다.³³⁾ 그러나 서당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초등교육의 주요 기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학령인구의 규모를 보통학교의 증설 규모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조선총독부도 書堂規則(1918년 공포) 등을 통해 서당의 철폐보다는 온존 및 관리에 힘썼다. 물론 근대적인 교과목을 도입했던 이른바 개량서당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개량서당의 규모는 전체 서당 규모에서 과반을 넘어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일례로 경성의 경우 1921년에 운영이 확인된 142개 서당 중 전통서당은 117개(82.4%), 개량서당은 25개(17.6%)였다. 1935년에는 서당이 570개로 증가했는데, 그중 전통서당은 392개(68.8%), 개량서당은 178개(31.2%)였다. 개량서당의 교육과정에서도 한문 교육을 중시했다.³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어책의 수요층으로서 교육제도와 연계된 인구는 해당 수요층의 일부분에 불과했다. 일례로 大東斯文會, 朝鮮僑風會, 儒道振興會, 朝鮮儒教

32) 「一葉連綿兩三代 (四): 三代四十五年 滙東書館」, 『朝鮮日報』, 1936.01.05, 3면. 참고로 이 신문 기사를 포함하여 회동서관에 관한 문헌자료의 사실성을 검토한 글로는 이윤석, 「신문 기사로 보는 회동서관」, 『근대서지』 20, 근대서지학회, 2019 참조.

33)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114면.

34) 본문의 서당에 관한 내용은 송찬섭의 『서당, 전통과 근대의 갈림길에서』(서해문집, 2018)를 기초로 서술했다.

會 등 각종의 유교 단체와 이들 단체의 기관지들이 시사하듯이 근대화의 격랑은 유림사회를 일거에 해체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하게 결집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³⁵⁾ 당연히 각종의 유교 단체들은 해방 이후에도 존속했다.³⁶⁾ 식민지시기가 끝날 때까지 주요 신문에 수록된 수천 편의 한시도 한문학의 영향력이 여전히 얼마나 일상적으로 발휘되고 있었는지를 증언한다.³⁷⁾ 1918년에 회동서관이 광동서국과 함께 보급판에 비해 7~8배나 가격 차이가 났던 고급 소장판인 “內閣版 七書具解”를 간행했던 일은 한자문화 향유층의 실질적인 구매력뿐만 아니라 시장세분화가 가능할 만큼 그 수요층이 다채로웠음도 시사한다.³⁸⁾ 금산공립보통학교에서 10년 근속 교사에게 기념품으로 다름 아닌 “白紙版 四書三經 一帙”을 증정했던 일도 마찬가지의 사례다.³⁹⁾ 식민지시기 내내 독자와 소장자, “古本商” 사이에서는 白紙版을 비롯한 다양한 한문책이 유통되고 있었다.⁴⁰⁾ 이런 사정 때문에 검열 당국 역시 한문책의 통제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⁴¹⁾

35) 변은진, 「일제강점기 유교 단체 기관지의 현황과 성격」, 『역사와 담론』 93, 호서사학회, 2020. 아울러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 연구단의 『일제강점기 유교단체 기관지 기사목록』(도서출판선인, 2020)을 비롯한 근대 유림 관련 자료총서는 식민지시기 유림사회의 현황을 실감하게 해주는 최근의 연구성과다.

36) 이황직, 「해방 직후 유교단체들의 성격에 관한 연구」, 『현상과 인식』 38(1)·(2),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4.

37) 한영규 외, 『식민지시기 한시자료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9. 아울러 식민지시기의 한문학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진균, 『모던한문학』, 학자원, 2015 참조.

38) 「內閣版 七書具解」, 『每日申報』, 1918.04.16, 1면.

39) 「十年勤績謝恩會」, 『東亞日報』, 1922.04.09, 4면. 참고로 白紙는 조선시대에 관청의 업무용 종이로 많이 사용되었던 저렴하고 보편적인 종이였다. 백지의 소비량이 컸기 때문에 백지는 선물뿐만 아니라 현물 공납과 화폐로도 활용되었다(손계영, 「조선시대 고문서에 사용된 종이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 한국기록관리학회, 2005; 손계영, 「17세기 사대부가의 종이 사용과 공급」, 『장서각』 38,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식민지시기에는 전통적인 백지로 간행된 한문책을 특별히 “白紙版”으로 표현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1926년에 翰南書林에서는 『海東歷代名家筆譜』 목각판본을 간행할 때 종이 품질에 따라 책을 “白紙版, 同 次品 及 改良紙” 이상 세 종류로 구분했다(「『海東歷代名家筆譜』」, 『東亞日報』, 1926.04.28, 3면). 가장 상품에 속했던 백지판의 가격은 10원이었다.

40) 「讀者社交室」, 『朝鮮日報』, 1936.02.05, 7면.

41) 한기형, 「식민지 검열의 한문자료 통제」, 『민족문화』 40, 한국고전번역원, 2012.

요컨대, 식민지 조선의 출판기구들이 한반도가 이른바 ‘한자권’의 핵심 지역 중 하나라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함에 따라 한반도의 책시장에는 식민지 조선어(말하자면, 근대 한국어)책 및 일본어책뿐만 아니라 중국어책과 식민지 조선에서 생산된 한문책까지도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다.⁴²⁾ 이는 식민지 조선의 책시장이 제국과 식민지라는 정치적 역학뿐만 아니라 한자권으로 대변되는 문화적 역학에 의해서도 좌우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프로이트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식민지 조선의 책시장은 ‘중층결정’되어 있었다. 1910년대 중반 무렵부터 출판사·서점의 판매도서목록집 분류 항목에 새롭게 등장했던 “京城書籍組合發行書籍, 漢文小說, 新舊雜歌類, 唐板各種分類目錄, 白紙版舊書目錄” 등은 그 중층성의 증거였던 셈이다.

그렇다면, 식민지 조선의 출판기구들이 1910년대 중반 무렵부터 중국어책과 한문책에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이유야 간단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교재시장의 불안정성만큼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확인했듯이 교재는 당시 출판기구들이 가장 공을 들였던 분야였고, 따라서 교재시장에서의 성패가 출판기구들의 생존을 좌우했다. 문제는 교재가 남다른 분야라는 점이었다. 교재는 그 용도의 특성상 책시장의 검열을 관장하는 경무총감부(경무국의 전신)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할했던 학무국의 통제도 받았기 때문이다.⁴³⁾ 이 이중적인 정치적 압력이 교재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켰던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42) ‘한자권’에 대해서는 齋藤希史의 논의를 참조했는데, 그는 한자권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입으로 표현하는 언어는 유동적이며 변화하기 쉽지만, 문자와의 대응 관계가 확립되면 문자 없이도 문장에 의거한 표준화나 규범화가 가능해진다. 춘추전국시대에는 문자 표현과 구두 언어 간의 상호 간섭이 유래가 없을 정도로 진행되어서 문언(文言, 중국 고전문·한문)이라 불리는 문체가 성립되었으며 하나의 서기 언어 세계를 확립했다. 한자권은 단순한 문자 유통권이 아닌, 문언이라는 서기 언어 세계를 지탱하는 권력이 되었다.”(齋藤希史, 허지향 역, 『한자권의 성립』, 글항아리, 2018, 71면.) 이를 ‘국어’와 ‘국민’의 관계로 비유하면, 한문은 한자권의 ‘국어’이고 한문 습득자는 한자권의 ‘국민’이다. 한자권은 근대 국민국가의 경계가 약해진, 초국가적인 언어공동체라 할 수 있다. 이 까닭에 식민지 조선에서 중국어책의 유통이 원활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 글에서는 한문책으로 제작된 책을 생산지에 따라 구분했다. 唐板은 중국어책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생산된 책은 한문책으로 표현했다. 엄밀한 구분이 아니라 혼동스럽지만, 현재로서는 더 나은 대안이 없다.

43) 조선총독부의 학무국과 교과용도서에 관해서는 장신,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집과 교과서 편찬」, 『역사문제연구』 16, 역사문제연구소, 2006 참조.

〈표 7〉 1910년대 교과용도서 현황: 『教科用圖書一覽』 소재

발행일	편찬	검정						인가							
		소계	조선인		일본인		소계	조선인		일본인		기타			
			種	冊	種	冊		種	冊	種	冊	種	冊		
1910.01.(04판)	8종 38책	19종 24책	19	24	0	0	233종 341책	139	169	80	150	14	22		
1910.07.(05판)	12종 42책	33종 48책	32	47	1	1	303종 398책	172	197	116	178	15	23		
1912.01.(06판)	12종 42책	46종 68책	44	65	2	3	268종 383책	113	140	147	235	8	8		
1913.07.(07판)	24종 80책	48종 75책	46	72	2	3	291종 409책	126	157	155	242	10	10		
1914.10.(08판)	42종 81책	16종 25책	6	11	10	14	246종 326책	124	152	115	167	7	7		
1915.12.(09판)	49종 89책	17종 26책	6	11	11	15	276종 363책	133	160	134	194	9	9		
1917.11.(11판)	59종 114책	18종 29책	6	11	12	18	338종 452책	136	165	192	277	10	10		
발행일	검정 무효 및 불허가						불인가								
	소계	조선인		일본인		소계	조선인		일본인		기타				
		種	冊	種	冊		種	冊	種	冊	種	冊			
1910.01.(04판)	6종 10책	6	10	0	0	43종 80책	42	79	0	0	1	1			
1910.07.(05판)	13종 17책	13	17	0	0	70종 135책	53	90	13	36	4	9			
1912.01.(06판)	13종 17책	13	17	0	0	150종 248책	111	163	27	63	12	22			
1913.07.(07판)	23종 45책	23	45	0	0	169종 275책	111	153	44	94	14	28			
1914.10.(08판)	77종 132책	74	129	3	3	186종 300책	116	168	59	112	11	20			
1915.12.(09판)	77종 132책	74	129	3	3	195종 315책	121	173	60	114	14	28			
1917.11.(11판)	77종 130책	74	127	3	3	195종 316책	113	161	66	125	16	30			

※ ‘種’은 종수를, ‘冊’은 책수를 뜻함

이 표는 『교과용도서일람』에 수록된 교과서 목록을 통계 처리한 것이다. 표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편찬교과서의 규모는 증가 일로를 걸었던 반면에 검정교과서와 인가교과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일강제병합 직후 먼저 압박을 받았던 것은 인가교과서였고, 검정교과서는 1914년 무렵에 결정적인 압박이 가해졌다. 이러한 시차가 생겼던 까닭은 조선총독부의 교과서 정책 때문이었다. 한반도의 교육제도를 통치 방향과 일치시키는 데는 朝鮮敎育令의 취지에 부합하여 학무국이 직접 제작한 편찬교과서만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은

지나치게 이상적이었다. 그렇다고 일본 본토의 문부성에서 발행한 국정교과서를 바로 사용하기도 어려웠다. 조선총독부로서는 식민지 조선의 이른바 ‘특수사정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무국의 편찬교과서 제작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존의 편찬 및 검정 교과서는 식민지 현실에 맞게 개정판을 발행하여 재활용하고, 인가교과서는 우선적·적극적으로 통제하자는 것이 조선총독부의 현실적인 타협책이었다. 인가교과서의 경우에는 인가를 신청한 학교에서만 사용되었으므로 불인가 처분을 내리더라도 그 여파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무국의 편찬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교과서 재편은 대략 19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17년 무렵에 일단락되었다.⁴⁴⁾ 이런 사정 때문에 불인가교과서의 규모는 한일강제병합 직후부터 급증했고, 검정 무효 및 불허가 교과서의 규모는 편찬교과서의 규모가 일정 수준에 오르기 시작한 1914년 무렵부터 뚜렷이 나타났던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조선총독부의 타협책에 전제된 조선인과 일본인에 대한 차별이 었다. 한일강제병합 직후 조선인의 인가교과서 규모는 급감한 반면에, 일본인의 인가교과서는 계속 증가했다. 일본인의 인가교과서는 1914년 무렵에 증가세에 제동이 걸렸지만, 그 이후에는 급증했다.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압도적으로 커졌던 불인가교과서의 규모 차이가 갈수록 줄어들기는 했어도 2배 정도의 격차는 줄곧 유지되었다. 그 결과 조선인의 인가교과서 규모는 4판과 11판에서 비슷해졌지만, 일본인의 인가교과서 규모는 2배 이상 커졌다. 더구나 조선인이 독점하고 있었던 검정교과서 분야에 일본인이 진출한 것과 발맞추어 조선총독부의 압박이 가해진 결과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형세 역전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상 조선인이 검정교과서 분야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되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다. 검정교과서는 인가교과서와 다르게 편찬교과서에 버금가는 활용 범위와 발행 부수를 가진 책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조선총독부의 차별은 편찬교과서 분야에서도 일관되었다.

44) 장신, 「한말·일제강점기의 교과서 발행제도와 역사교과서」, 『역사교육』 91, 역사교육연구회, 2004, 10~12면.

〈표 8-1〉 교과용도서 발매인 규모 (1): 『教科用圖書一覽』 소재

발행일	자격 유지		신규 허가		전체 규모(= 유지 + 신규)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소계
1910.01.(04판)	29	10	0	0	29	10	39
1910.07.(05판)	21	10	22	2	43	12	55
1912.01.(06판)	41	12	5	12	46	24	70
1913.07.(07판)	43	27	9	13	52	40	92
1914.10.(08판)	42	34	49	104	91	138	229
1915.12.(09판)	77	126	26	35	103	161	264
1917.11.(11판)	76	131	67	69	143	200	343

〈표 8-2〉 교과용도서 발매인 규모 (2): 『朝鮮總督府 官報』 소재

연도	신규 허가		자격 상실		누적 규모(= 허가 - 상실)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합계
1911년	4	12	1	0	3	12	15
1912년	13	14	8	1	5	13	18
1913년	37	91	9	8	28	83	111
1914년	22	25	4	11	18	14	32
1915년	27	32	15	8	12	24	36
1916년	35	28	13	9	22	19	41
1917년	40	44	18	24	22	20	42
1918년	42	29	5	12	37	17	54
1919년	38	28	14	15	24	13	37
1920년	42	33	17	24	25	9	34
1921년	112	100	54	47	58	53	111
1922년	129	65	65	36	64	29	93
1923년	42	17	16	7	26	10	36

이 글 서두에서 환기한 대로 자료 간, 그리고 동일 자료 내에서도 수치상의 오류가 적지 않다.⁴⁵⁾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더라도 1914년을 전후한 무렵에 일본인에게

발매인 자격이 대거 주어짐으로써 전체 발매인에서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사정을 두 자료는 공통적으로 증언한다. 당연히 일본인 발매인의 급증은 재조일본인의 학령인구와 무관한 일이었다. 예컨대, 1917년의 경우 식민지 조선인에게 판매된 초등용 편찬교과서는 663,073책이었던 데 반해 재조일본인에게 판매된 규모는 2,865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⁴⁶⁾

흥미롭게도 일본인 발매인 급증은 1913년 2월에 敎科用圖書發賣規程이 개정된 직후 일어난 일이었다. 그 이전까지 조선총독부는 경성과 지방을 구분하여 경성의 경우에는 1회 100책 이하, 지방의 경우에는 1회 50책 이상으로 발매인의 청구 책수를 제한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학령인구의 유동성을 이유로 그 제한 사항을 철회했다.⁴⁷⁾ 이에 따라 주문이나 배송 처리 등에 경쟁력을 갖추기만 한다면, 편찬교과서의 판매를 허가받은 구역에서 교과서 판매업을 독점사업처럼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높아졌다. 이 특권의 분배 과정에서 조선총독부는 일본인을 우대했다.

조선총독부의 차별 정책 때문에 식민지 조선의 출판기구들이 교재시장에서 느꼈을 불안감과 위기감이 날로 더해가고 있었을 때 조선총독부가 1921년 1월 31일에 공포했던 朝鮮總督府出版敎科用圖書發賣規程은 교재시장에 대한 식민지 조선 출판기구들의 기대와 미련을 아예 잘라내 버리는 조치와 다를 바 없었다. 그 발매 규정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조선총독부와 전국 발매인 간의 중개 업무를 관장하는 일종의 총판매인을 두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역별 발매인의 정원을 “京城府 20인, 道廳所在地의 府郡 5인, 기타의 府郡島 3인 내지 5인”으로 한정하다는 것이었

45) 편찬교과서의 발매인 정보는 『敎科用圖書一覽』과 『官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 자료의 성격이 다른데, 먼저 『敎科用圖書一覽』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에 파악한 지역별 전체 발매인 현황을 보여준다. 본문의 표에 제시된 “자격 유지”와 “신규 허가”는 직전 시기에 파악한 결과와 비교해서 필자가 구분한 것이다. 다음으로 『官報』의 경우에는 신규 허가과 자격 상실, 주소지 변경 등 발매인 관련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공시한 것이다. 자격 상실은 발매인의 사망이나 폐업, 혹은 부정행위나 1년 이상 교과서 구입을 청구하지 않은 데 따른 자격 실효 및 취소 등의 이유로 발생했다. 이와 같은 자료의 성격 차이에 기초해 볼 때 『敎科用圖書一覽』의 발매인 정보는 해당 시점의 발매인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데, 『官報』의 발매인 정보는 발매인 규모의 변동에 따른 “누적 규모”를 파악하는 데 좀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46) 『朝鮮總督府施政年報』(1917년분), 1919.03, 284면.

47) 『朝鮮總督府施政年報』(1912년분), 1914.03, 394면; 「新敎科書 發賣規程 改正」, 『每日申報』, 1913.3.13, 2면.

다. 총판매인은 경성에서 여느 발매인처럼 교과서 판매도 겸할 수 있었다. 당연히 조선총독부는 총판매인에 일본인을 지명했다. 총판매인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과서 판매방식 자체에 대한 불신과 거부가 거세게 일어났고, 만 2년 후인 1923년 3월 31일에 총판매인제도는 폐지되었다. 이후 조선총독부는 교과서 발행 사업을 민영화 하여 운영했다.⁴⁸⁾

이와 같은 검열과 차별에 따른 이중적인 압력 아래에서 식민지 조선의 출판기구들은 출판 전략을 조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교재에 집중된 출판·유통의 역량을 분산할 필요가 있었다. 이 결과가 한편으로는 앞에서 살펴봤던 중국어책과 한문책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한편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는 다음의 표를 보며 확인해보자.

〈표 9〉 『毎日申報』 책 광고의 대분류 항목에 따른 시기별 분포: 1910~1919

		1910~11년	1912~13년	1914~15년	1916~17년	1918~19년
한서	건수	131(3.2%)	256.5(7.0%)	140(5.9%)	553(17.4%)	212.5(10.0%)
	종수	3(1.6%)	13(4.6%)	5(3.0%)	19(11.6%)	6(8.7%)
인문학	건수	379(21.8%)	146(4.0%)	106.5(5.6%)	95(3.0%)	92(2.5%)
	종수	23(25.2%)	17.5(6.3%)	14(8.4%)	7(4.3%)	4.5(3.4%)
사회과학	건수	240(10.9%)	402(11.3%)	206.5(11.6%)	288(9.5%)	184(9.5%)
	종수	15.5(14.0%)	41.5(14.8%)	27.5(17.1%)	19(11.6%)	9(7.5%)
자연과학	건수	0(0.0%)	0.5(0.1%)	1.5(0.2%)	0(0.0%)	0.5(0.1%)
	종수	0(0.0%)	0.5(0.1%)	1.5(0.8%)	0(0.0%)	0.5(0.3%)
기술과학	건수	154.5(3.7%)	141.5(3.8%)	85.5(3.6%)	168(5.5%)	53(3.8%)
	종수	9(4.9%)	13(4.6%)	9.5(5.8%)	6(3.7%)	6.5(7.3%)
교재	건수	1101.5(46.1%)	1515(41.8%)	889.5(41.7%)	1093(35.2%)	419.5(29.4%)
	종수	51(36.6%)	106(37.8%)	59.5(36.7%)	44.5(27.1%)	26(28.4%)
예술 대중문화	건수	49.5(6.2%)	90(2.4%)	77(5.4%)	179.5(5.9%)	148.5(13.2%)
	종수	4.5(7.2%)	8.5(3.0%)	9.5(5.8%)	20(12.2%)	16(17.7%)

48) 유석환, 「문학 범주 형성의 제도사적 이해를 위한 시론·출판사·서점의 판매도서목록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7,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32~44면. 참고로 당시의 지역별 발매인 현황은 그 글 40면의 표9-2 참조.

문학	건수	132.5(4.3%)	923(26.1%)	544(24.3%)	699(22.3%)	411.5(31.3%)
	종수	5.5(4.6%)	62(21.6%)	31(19.5%)	42(25.6%)	38(30.5%)
기타	건수	44.5(3.8%)	123.5(3.5%)	29(1.5%)	41(1.2%)	5.5(0.2%)
	종수	3.5(5.9%)	21(7.0%)	5(2.9%)	6.5(4.0%)	2(0.6%)
합계	건수	2232.5(100%)	3600.5(100%)	2080.5(100%)	3116.5(100%)	1481.5(100%)
	종수	115(100%)	283(100%)	162.5(100%)	164(100%)	107.5(100%)

이 표는 앞의 표4처럼 1910년대 『매일신보』 책 광고를 대항목별로 정리한 것이다. 다만 시기별 동향을 좀더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 기간을 2년 단위로 설정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의 모든 수치는 평균값이다.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표를 살펴보면, 1910년대 초기의 상황과 말기의 상황이 상당히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에는 교재를 위시하여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책 광고의 3/4 이상을 차지했지만, 후기에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대신에 문학과 예술·대중문화가 책 광고의 중심을 차지했다. 특히 문학은 교재와 엇비슷할 정도로 책 광고에서 그 위상이 높아졌다.

주의할 사실은 이와 같은 변화가 이 글에서 주목하고 있는 1910년대 중반을 전후해서 현저해졌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책 광고에서 40% 이상을 유지했던 교재의 비중이 그 무렵부터 감소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서의 비중이 그 무렵에 일시적으로 급등하여 사회과학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 현상은 앞에서 언급했던 판매도서목록집의 변화상과 일치하는 것임과 동시에 1910년대 중반 무렵이 큰 변화의 시점임을 시사하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하다. 아울러 간과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당시 출판기구들이 책 광고에서 교재의 비중을 줄이면서까지 다른 책들에 관심을 기울인 이유가 정치적인 압력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교재 외의 책들에 대한 수요층이 부재했다면, 출판기구들이 교재 외의 다른 분야로 눈을 돌리고 싶어도 돌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책시장은 언제나 권력의 논리만큼이나 자본의 논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었다.

IV. 식민지 전반기 책시장의 조망과 앞으로의 과제

1910년대에 검열을 통한 조선총독부의 정치적 압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책시장을 한순간에 뒤튼 사건은 바로 3·1운동이었다. 이는 비상사태에 빠진 저자와 독자 때문이기도 했지만, 조선총독부가 유인물 제작·배포 등을 조사하는 통에 출판기구들 사이에서도 일대 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방효순의 조사에 따르면, 출판사 규모는 3·1운동 직전인 1918년에 정점에 도달한 후 1919년에는 1910년대 초기 수준으로 위축되었다.⁴⁹⁾ 『매일신보』에 수록된 책 광고 규모 역시 똑같았는데, 책 광고의 전체건수 규모는 1918년에 비해 1/4 수준(2,348건 → 615건)으로, 해당 광고에서 신간종수 규모는 1/3(163종 → 52종) 수준으로 급감했다.

한일강제병합 이후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었던 3·1운동은 일제로 하여금 ‘무단정치’를 종결짓고 ‘문화정치’를 시행하게 만들었지만, 한일강제병합과 마찬가지로 책시장의 동향만큼은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표를 살펴보자.

〈표 10-1〉 1920년대 판매도서목록집의 분류 항목수 및 책 종수 현황⁵⁰⁾

발행일	제호	발행처	분류 항목수	책 종수	비고
1920.12.	圖書分類目錄	共進書館	27개	1,787종	경성서적업조합원
1921.11.	圖書分類目錄	共進書館	26개	1,270종	경성서적업조합원
1922.05.	圖書分類目錄	東亞書館	29개	2,032종	
1923.07.	圖書分類目錄	文昌社	29개	1,843종	경성서적업조합원
1925.04.	圖書目錄	三光書林	34개	1,355종	
1927.09.	新刊圖書目錄	博文書館	38개	1,982종	
1931.01.	新刊圖書目錄	永昌書館	38개	2,390종	

49) 방효순, 「일제시대 민간 서적발행활동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20~21면.

50) 표10-1은 유석환, 「출판사·서점의 판매도서목록에 대한 몇 가지 단상」, 『근대서지』 11, 근대서지학회, 2015, 561면에 제시된 표의 수치를 수정하여 다시 정리한 것이다.

〈표 10-2〉 삼광서관과 박문서관 판매도서목록집의 분류 항목 및 책 종수

계 호	圖書目錄				新刊圖書目錄			
발행처	三光書林				博文書館			
발행일	1925.04.				1927.09.			
책 분류 항목 및 책 종수	분류 항목	종수	분류 항목	종수	분류 항목	종수	분류 항목	종수
	(교과용도서)	34	學生參考書類	25	新小説及 古代小説	297	簿記學書類	4
	經書類	17	簿記學書類	3	雜歌書類	14	實業書類	16
	教科及 教育參考書類	33	遊戲書類	6	漢文小説書類	15	作文書類	9
	修養書類	12	演說及 式辭法書類	9	文藝小説書類	157	數學書類	13
	偉人傳記及 思想書類	28	歷史及 地理書類	16	修養書類	20	運動及 遊戲書類	14
	哲學及 宗教書類	13	法律書類	4	偉人傳記書類	46	演說及 式辭法書類	13
	文藝書類及 通俗小説類	75	書式書類	4	思想書類	18	歷史及 地理書類	27
	新舊小説類	144	尺牘書類	40	哲學及 宗教書類	38	政治法律 經濟學	21
	漢文小説及 傳記	9	醫學書類	8	야소교서류	34	書式書類	8
	滑稽書類	15	卜筮書類	9	腳本書類	16	尺牘書類	72
	腳本書類	9	其他雜書類	24	音樂書類	40	醫學書類	18
	童話及 童謠書類	4	雜歌書類	13	童話及童謠	13	滑稽書類	20
	音樂書類	23	白紙版舊書目錄	53	經書類	16	家庭學書類	13
	詩律及 法帖書類	16	唐板各種類目錄	627	詩律及 法帖書類	33	雜書類	48
	語學及 文法書類	36	합 계	1355	新詩集類	23	白紙版 舊書目錄	50
	字典及辭典類	12			教科及 教育參考書類	42	(교과용도서)	39

	理科書類	10			普校高普教科 參考書	25	日本文辭書 案内	55
	實業書類	5			字典及 辭典書類	15	唐板各種 分類目錄	612
	數學書類	12			語學及 文法書類	56	합 계	1986
	作文書類	7			理科書類	16		

위의 <표 10-1>은 1920년대 판매도서목록집의 분류 항목수와 책 종수 규모를 정리한 것이고, 밑의 <표 10-2>는 그것들 중 삼광서림과 박문서관의 것을 앞의 <표 5>와 같이 좀더 상세하게 정리한 것이다. 먼저 <표 10-1>에서 판매도서목록집의 분류 항목수는 시간이 갈수록 점증하여 1927년의 박문서관본에 이르면 그 규모가 정점에 도달했다. 그 이후로도 박문서관의 것 이상의 분류 항목수를 보여주는 판매도서목록집은 발행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책 종수 규모는 상당히 기복이 심했다. 이는 출판기구 간 서점의 기능, 즉 책 유통의 역량 차이가 현저히 나타난 결과였다. <표 10-1>의 비고가 말해주듯이 배타적인 규약을 통해 책 유통의 역량을 일정 수준에서 평준화시켰던 경성서적업조합이 점점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일례로 1924년 8월에 박문서관은 고소설 출판의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조합 몰래 비밀리에 출판했다가 들통날까 봐 먼저 “脫退願”을 제출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박문서관의 비리를 알았던 조합은 “脫退願을 受理치 안코 規約에 依하여 黜組” 처분을 단행했다.⁵¹⁾ 이는 조합의 구속력이 갈수록 약화되었던 일을 시사하는 사건임과 동시에, 이제는 조합이 필요 없을 정도로 출판기구들이 성장하고, 책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던 사정을 방증한다.

이런 가운데 약 2년 반쯤의 시차를 두고 발행된 삼광서림과 박문서관의 판매도서목록집은 1910년대 중반 무렵부터 시작되었던 변화의 지속성이 1920년대 중반에 이르면 임계에 다다르게 되었던 점을 보여준다. 또 한 차례의 획기적 변화는 분류 항목의 추가와 더불어 분류 항목들의 새로운 배치를 통해 나타났다. 경성서적업조합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경서류를 비롯한 한문책과 중국어책이 계속 중시되던 가운데 그

51) 「京城書籍業組合」, 『東亞日報』, 1924.08.20, 3면; 「京城書籍業組合」, 『朝鮮日報』, 1924.08.20, 3면.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日本文辭書案内”가 박문서관본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중국어책의 경우처럼 일본어책의 배급처를 자임한 결과였다. “日本文辭書案内”의 대부분이 어학사전이라 항목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을 뿐 그 분류 항목에는 사전류 외의 또 다른 일본어책들도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어책의 등장 이상으로 중요한 변화는 분류 항목의 새로운 배치였다. 대규모의 책 정보를 담은 판매도서목록집이 책시장에서 유통된 이래 처음으로 교과서가 판매도서목록집의 후미로 밀려나고, 줄곧 후미에 있었던 문학책이 그 자리를 차지하며 전면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일본어책의 등장과 분류 항목의 재배치는 이 시기의 박문서관 판매도서목록집에서만 나타났던 현상이 아니라 이후에 간행된 판매도서목록집들에서도 일관되었던 현상이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출판기구들 사이에서 책에 대한 관념이 새롭게 변화했음을 뜻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지면 여건상 이후의 과제로 미룰 수밖에 없다. 일단은 식민지시기 책시장의 전개 과정에서 1910년대 중반처럼 1920년대 중반이 또 하나의 획기적인 시기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만족하며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자.

20세기에 들어서는 말할 것도 없고, 20세기 이전에도 한반도의 책시장은 상당히 강경한, 국가 차원의 정치적 압력 아래에 놓여 있었다. 물론 정치적 압력을 행사했던 주체와 이유는 서로 달랐다. 20세기 이전에는 시장경제 자체를 경계했던 조선 정부가 책시장의 활성화를 염려했다면, 20세기에 들어서는 조선총독부가 반체제적인 여론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한반도의 책시장을 완전히 제어하고 싶어 했다. 이렇게 책시장이 국가 권력에 의해 강력하게 통제되었던 오랜 역사적 경험이 제국과 식민지라는 역사적 구도와 맞물려서였을까? 정치적 시각에서 조망하려는 관성에 몸을 맡긴 채 책시장의 근대사를 정치사의 시간표를 따라서 설명하는 일이 당연시되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중요한 정치적 사건들, 이를테면 한일강제병합, 3·1운동,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이 10년 단위의 연대에서 처음이나 끝자리에 발생했다. 다시 말해 책시장의 근대사를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와 같이 연대기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하는 문제의식은 정치적인 시각이 자명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그런 문제의식을 대상화하는 한편, 정치적인 논리로 환원될 수 없는 책시장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춰 식민지시기 책시장의 역사를 다시 써보려는 기획 아래 집필된 첫 번째 글이다.

이 글에서는 1900년대와 1910년대 책시장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검토했다. 책시장이 그렇게나 열악했던 20세기 이전에도 그랬지만, 교재는 가장 확실한 수요층을 가진 분야였다. 식민지라는 조건은 말할 것도 없고, 인구의 규모, 문맹률, 경제력, 출판·유통의 인프라 등등 남다르게 높았던 교육열 말고는 무엇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변변치 않았던 당시 상황에서 출판기구들이 교재에 집중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일제가 아직은 대한제국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해 민간의 출판 자유가 한시적으로 일정 수준 보장되었고, 이 덕분에 근대 계몽주의가 강렬히 빛났던 1900년대 후반기의 책시장을 조망해 보더라도 문학사에서 중시하는 역사·전기물과 같은 정치적인 책들은 책시장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당연히 책시장에서 교재 우선주의의 경향성은 한일강제병합 이후에도 지속되었다.⁵²⁾

책시장의 불연속성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은 191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서였다. 경서류를 비롯한 한문책의 생산과 함께 초간 연도가 19세기 후반을 넘어서지 않는 중국어책의 유통이 활발해진 일이 그 근거였다. 한문책과 중국어책의 가장 확실한 수요층이 학령인구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 책들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교육제도의 요구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더군다나 그 교육제도의 성격도 대한제국이나 조선총독부가 추진했던 교육제도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 교육제도는 장기지속적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아주 광범위한 사회적·문화적 차원의 일부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흔히 근대와 대비되는 전통을 연상하지만, 국가 및 민족의 경계를 초월했다는 점에서 그것은 국가적·민족적 관념이 전제된 전통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 글에서는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해 할 수 없이 그 장기지속적인 사회적·문화적 구조물을 ‘한자권’이라고 표현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한자권에 기초한 책시장의 중층성은 제국과 식민지의 역학 혹은 일본어책과 조선어책의 대립 구도 속에서 식민지시기 책시장의 운명을 설명한 그간의 연구들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다.

52) 책 광고의 규모와 같은 수치에 전적으로 의존한 이런 식의 판단에 대해 지나치게 양적인 면만을 중시한다고 우려할지도 모르겠다. 정당한 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양으로 환산될 수 없는 질적인 면도 고려해야 함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안은 이 글의 문제의식과 거리를 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 글의 문제의식은 책시장의 주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지, 특정 저자나 장르에 속한 책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일일이 따져보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사안은 이 글에서 주목한 출판기구가 아니라 독자에 초점을 맞춘 수용사의 관점에서 다루어져 할 주제로 보인다.

아울러 1910년대 책시장에서 문학책의 비중 확대, 말하자면 문학시장의 성장은 단순히 조선총독부의 검열과의 마찰에서 빚어진 데 따른 반사이익의 결과만은 아니었다. 물론 검열과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에 어긋난다. 허가주의에 기초한 검열시스템의 전방위적인 폭력과 이로 인해 인문학 및 사회과학에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떼야 했던 식민지 조선의 출판기구들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했기 때문이다. 다만 왜 그 출구가 문학으로 수렴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검열로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사안임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더구나 정론을 극도로 통제했던 무단정치의 조선총독부라든지, 식민지 조선인에 비해 과학적·실용적 출판물에 열중했던 재조일본인의 출판활동 등을 너무 의식하여 식민지 조선의 출판기구들이 결국에는 탈정치적이고 비과학적인 문학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논리는 식민지인을 지나치게 수동적인 존재로 파악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책시장의 주된 경향성이었던 교재 우선주의를 상기하면, 식민지 조선의 출판기구들은 사실 교재에 대한 투자를 더 강화해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였다. 조선총독부의 차별 정책 때문에 교재시장에서 식민지 출판기구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졌기 때문이다. 책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일이 필수적이었고, 당시의 주요 출판기구들이 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검열과 차별의 이중적인 정치적 압력은 시장 개척의 시급함을 강렬히 자극한 요인에 불과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출판기구들이 새롭게 개척한 시장은 그동안 그들의 핵심 시장이었던 교재시장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달랐기 때문이다. 미지의 영역과 다를 바 없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일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기획력과 추진력이 없으면 성사되기 어려운 법이다. 당시 출판기구들이 도전했던 그 새로운 시장이란 다름 아닌 근대적인 교육제도의 주변부에 자리 잡았던 인구, 바로 농민과 여성, 미취학 아동 등이 중심적인 인구였다. 한반도 인구의 최소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그 인구는 한자권의 주변부 계층이기도 했다. 출판기구들은 문학, 특히 고소설을 활용해 그 낯선 시장을 개척했다.⁵³⁾

53) 고소설에 반영된 출판기구들의 기획력 중 하나는 순국문의 운문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일이었다. 순국문의 운문체는 독자에게 최소한의 가독력만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고소설을 빠르게 유행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이에 관해서는 장유정, 「1910~1920년대 활자본 고소설의 '낭독성'에 대하여」, 『제2회 혁신·공유·정의 성균 한국어문학 학술대회 발표집』, 성균관대 BK21 교육연구단, 2021 참조.

1910년대에 신·구소설을 중심으로 한 문학시장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출판기구들의 극심한 경쟁이었다. 조선총독부의 정치적 압력 때문에 책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소설은 저작권이나 검열, 대중성 등과 관련한 사안들에서 출판기구들의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켜준 상품이였다. 한마디로 문학시장을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책시장의 패권이 좌우되는 셈이었다. 그 결과 모방과 표절로 점철된 이른바 딱지본의 본격적인 양산 가운데 그야말로 사활을 건 출판기구들 간의 치킨게임이 당시 문학시장에서 펼쳐졌다. 배타적인 출판 카르텔과 다를 바 없었던 경성서적업조합의 결성은 그런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는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급성장했던 문학시장은 출판기구들이 새롭게 발견했던 한자권과 결부되며 그 중층성을 점점 공고히 다지게 되었다. 판매도서목록집에서 한문소설이 고소설과 구별되어 독립적인 분류 항목으로 설정되어 유통되었던 일이 그 점을 잘 보여준다. 이는 3·1운동 시기를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했던 근대문학이 단지 고소설로 대변되는 전통문학과와의 길항 가운데 사회에 정착한 것이 아님을 뜻한다. 전통이라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전통보다 훨씬 더 광활하고 아주 오래된 사회적·문화적 감수성과의 마찰 속에서 근대문학은 형성되었다.

앞에서 간단히 지적했듯이 1910년대 중반 무렵에 크게 요동쳤던 책시장은 1920년대 중반 무렵에 또 한 차례의 변혁기를 맞이했다. 이 두 번째 변화상을 비롯하여 해방 이전까지의 책시장의 변동 양상을 적절히 시기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이후의 과제다. 이 첫 번째 글에서 못다 한 논의들은 앞으로의 글들에서 개진할 것을 약속한다.

〈부록 1〉 책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漢書	經	四書五經 및 그 주석서·연구서, 효경, 소학류 등
	史	역사, 전기, 금석문, 조칙, 상소문, 문물제도 일반, 관공서 문서 등
	子	제자백가, 雜家, 譜錄, 正音, 譯學, 類書, 西學 등
	集	

인문학	종교학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천도교, 신화 등
	철학	심리학, 논리학, 윤리학 등
	역사학	전기, 지리, 풍속
	언어학	
사회 과학	정치학	국가, 법, 외교, 군사
	경제학	
	사회학	사회사상(민족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등), 사회문제(노동), 여성(가정, 결혼, 육아 등), 언론, 교육, 행정
	시사	논설, 강연
	핸드북	서식, 총람, 요람
	총독부간행물	
자연 과학	생명과학	식물학, 동물학, 영양학, 생물학
	지구과학	천문학, 지질학, 광물학, 해양학
	기타	수학, 물리학, 화학
기술 과학	의학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약학, 한의학
	공학	건축, 전기, 기계, 측량, 교통, 통신
	산업	농업(비료), 어업, 상업, 임업(원예), 목축업(양잠, 양봉, 양계, 양돈 등), 광업, 금융업(회계, 부기, 주식, 보험 등), 제조업(방직, 방적 등)
교재	교수서	
	사전	언어, 백과사전
	교과서	각종 교과서, 수신서 등
	참고서	문제집
	수험서	취업, 입학
	언어	서법, 작문(서간, 척독, 간독), 회화, 문법
	독본	
	통신강의록	

식민지시기 책시장의 동향과 지식·문학의 관계 (1)

예술 · 대중 문화	미학	
	음악	창가, 잡가, 판소리
	미술	조각, 회화, 공예
	영화	
	사진	
	취미	스포츠, 가투, 마작, 바둑, 경마, 요리, 낚시, 여행(관광) 등
	이야기	강담, 야담, 笑談(笑話), 괴담, 奇聞, 만화, 격언(어록, 속담) 등
	자기계발	사교(연애), 성공(致富), 화술(연설, 웅변), 奇術(최면, 忍術)
	性	
	역학	사주, 관상, 풍수, 작명
문학	시가	한시, 근대시, 동요동시, 기타(시조, 가사, 민요 등)
	소설	고소설(한문소설 포함), 근대소설, 동화
	희곡	시나리오
	평론	비평, 연구
	수필	기행, 서간, 회고, 자서전
	앤솔로지	시가, 소설, 희곡, 평론, 수필, 기타(장르 분류 불가)
	기타	문예독본, 문예연감, 문예사전, 시작법
기타	족보	
	지도	
	달력	
	잡서	일기, 가계부

〈부록 2〉 발매금지 51종의 책 목록

서명	冊	저작자	발행자	서명	冊	저작자	발행자
初等大韓歷史	1	鄭寅琥	鄭寅琥	民族競爭論	1	劉鎬植	古今書海館
普通教科東國歷史	2	玄采	不明	國家學綱領	1	安鍾和	金相萬
新訂東國歷史	2	元泳義 柳瑾	徽文館	飲氷室自由書	1	全恒基	朴基駿
大東歷史略	1	俞星潯	博文書館	準備時代	1	中央總部	普文館
大韓新地誌	2	張志淵	南章熙	國民須知	1	金宇植	金相萬

大韓地誌	2	玄采	廣文社	國民自由進步論	1	劉鎬植	古今書海館
最新高等大韓地誌	1	鄭寅琥	鄭寅琥	世界三怪物	1	卞榮晚	廣學書舖
問答大韓新地誌	1	博文書館編輯	盧益亨	二十世紀之大慘劇帝國主義	1	卞榮晚	金相萬
最新初等大韓地誌	1	鄭寅琥	鄭寅琥	強者の權利競爭	1	劉文相	義進社
最新初等小學	4	鄭寅琥	鄭寅琥	大家論集	1	劉文相	弘文館
高等小學讀本	2	徽文義塾編輯部	徽文館	青年立志編	1	劉文相	弘文館
국문과본	1	元泳義	中央書館	男女平權論	1	崔鶴韶	崔翼承
初等小學	4	國民教育會	國民教育會	片片奇談警世歌	1	洪鍾櫟	普文館
國民小學讀本	1	不明	不明	쇼인교육	1	임경직	徽文館
小學漢文讀本	2	元泳義	元泳義	愛國精神	1	李琛雨	朱翰榮
녀독본	2	張志淵	金相萬	이국정신담	1	李琛雨	朱翰榮
婦女獨習	1	姜華錫	李駿求	夢見諸葛亮	1	劉元杓	金相萬
高等小學修身書	1	徽文義塾編輯部	徽文館	乙支文德	1	申采浩	金相萬
初等倫理學教科書	1	安鍾和	金相萬	을지문덕	1	申采浩	金相萬
中等修身教科書	2	徽文義塾編輯部	徽文館	伊太利建國三傑傳	1	申采浩	金相萬
初等小學修身書	1	柳瑾	金相萬	葛蘇士傳	1	李輔相	中央書館 博文書館
獨習日語正則	1	鄭雲復	金相萬	華盛頓傳	1	李海朝	高裕相
精選日語大海	1	朴重華	李鍾楨	波蘭末年戰史	1	不明	吳榮根 玄公廉
實地應用作文法	1	崔在學	鄭雲復	美國獨立史	1	玄鑾	吳榮根 玄公廉
飲氷室文集	2	梁啓超	廣智書局	埃及近世史	1	張志淵	皇城新聞社
國家思想學	1	鄭寅琥	鄭寅琥				

※ 冊은 책수를 뜻한다.

투고일: 2021.10.11

심사일: 2021.11.30

게재확정일: 2021.12.13

참고문헌

출판사·서점의 판매도서목록집, 『教科用圖書一覽』, 『朝鮮總督府 官報』, 『朝鮮總督府施政年報』, 『大韓每日申報』, 『每日申報』 등

김봉희, 『한국 개화기 서적문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9

김진균, 『모던한문학』, 학자원, 2015

민족문화사 편, 『근대계몽기의 학술·문예사상』, 소명출판, 2000

송찬섭, 『서당, 전통과 근대의 갈림길에서』, 서해문집, 2018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이민주, 『제국과 검열: 일제하 신문통제와 제국적 검열체제』, 소명출판, 2020

이중연, 『‘책’의 운명』, 해안, 2001

최호석, 『활자본 고전소설의 기초연구』, 보고사, 2017

한영규 외, 『식민지시기 한시자료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9

齋藤希史, 허지향 역, 『한자권의 성립』, 글항아리, 2018

강명관, 「근대계몽기 출판운동과 그 역사적 의의」, 『민족문화사연구』 14, 민족문화사학회, 1999

권두연, 「보성관(普成館)의 출판활동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44,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방효순, 「일제시대 민간 서적발행활동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1

_____, 「근대 출판문화 정착에 있어 경성서적업의 역할에 관한 고찰」, 『한국출판연구』 38(2), 한국출판학회, 2012

변은진, 「일제강점기 유교 단체 기관지의 현황과 성격」, 『역사와 담론』 93, 호서사학회, 2020

손계영, 「조선시대 고문서에 사용된 종이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 한국기록관리학회, 2005

_____, 「17세기 사대부가의 종이 사용과 공급」, 『장서각』 38,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신승모, 「일한서방(日韓書房)과 ‘일본어’ 권력」, 박광현·신승모 편저, 『월경(越境)의 기록』, 어문학사, 2013

유석환, 「출판사·서점의 판매도서목록에 대한 몇 가지 단상」, 『근대서지』 11, 근대서지학회, 2015

_____, 「문학 범주 형성의 제도사적 이해를 위한 시론」, 『현대문학의 연구』 57,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_____, 「식민지시기 책시장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1): 『매일신보』의 책 광고」, 『민족문화사연구』 64,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17

- _____, 「식민지시기 책시장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2): 『동아일보』의 책 광고」, 『상허학보』 54, 상허학회, 2018
- _____, 「식민지시기 책시장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3): 『조선일보』의 책 광고」, 『상허학보』 62, 상허학회, 2021
- 이경현, 「1910년대 新文館의 문화기획과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3
- 이윤석, 「신문 기사로 보는 화동서관」, 『근대서지』 20, 근대서지학회, 2019
- 이황직, 「해방 직후 유교단체들의 성격에 관한 연구」, 『현상과 인식』 38(1)·(2),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4
- 장 신, 「한말·일제강점기의 교과서 발행제도와 역사교과서」, 『역사교육』 91, 역사교육연구회, 2004
- _____,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집과와 교과서 편찬」, 『역사문제연구』 16, 역사문제연구소, 2006
- _____, 「한국강점 전후 일제의 출판통제와 ‘51종 20만권 분서(焚書)사건’의 진상」, 『역사와 현실』 80, 한국역사연구회, 2011
- 정근식, 「식민지적 검열의 역사적 기원: 1904~1910년」, 『사회와 역사』 64, 한국사회사학회, 2003
- 정근식·최경희, 「도서과의 설치와 일제 식민지출판경찰의 체계화, 1926~1929」, 검열연구회, 『식민지 검열: 제도·텍스트·실천』, 소명출판, 2011
- 장유정, 「활자본 고소설과 식민지 모더니티」,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20
- _____, 「1910~1920년대 활자본 고소설의 ‘낭독성’에 대하여」, 『제2회 혁신·공유·정의 성균 한국어문학 학술대회 발표집』, 성균관대 BK21 교육연구단, 2021
- 한기형, 「식민지검열의 한문자료 통제」, 『민족문화』 40, 한국고전번역원, 2012
- _____, 「지식문화의 변동과 문학장의 재구성: 1910년대와 1920년대 초반의 상황」, 『반교어문연구』 38, 반교어문학회, 2014

The Trend of the Book Market during the Colonial Period in Korea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nd Literature (1)

— Conjuncture in the mid-1910s

Yu, Seok-hwan

This article is a review of the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the book market in the first half of the colonial period in Korea. Even after the book market experienced the Japanese forced annexation of Korea, the tendency to prioritize textbooks was consistently maintained. The first epochal change in the colonial book market occurred around the mid-1910s. One of the reasons was that the colonial publishing organizations' position in the textbook market was getting narrower due to the discrimination policy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t that time, publishing organizations pioneered a new market through Chinese books, literary books, and the like. This was the result of the colonial publishing organizations' new discovery of long-lasting social and cultural structures, in other words, the 'sinographic sphere(漢字圈)'. Needless to say, the overdetermination of the book market based on sinographic sphere calls for a reconsideration of the studies that have explained the fate of the book market during the colonial period in the dynamics of empire and colony, or the conflicting design of Japanese books versus Korean language books.

Key Words : book market, literary marketplace, Chinese book(唐板), book advertisements, book catalog

